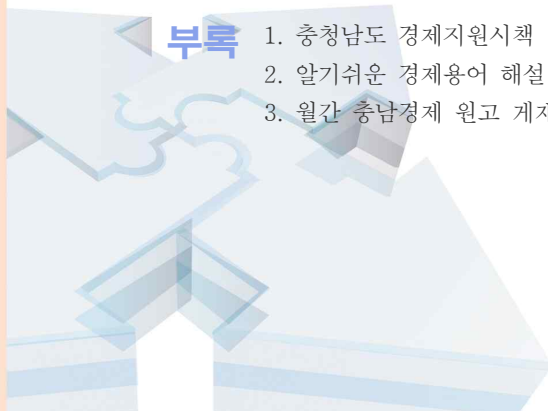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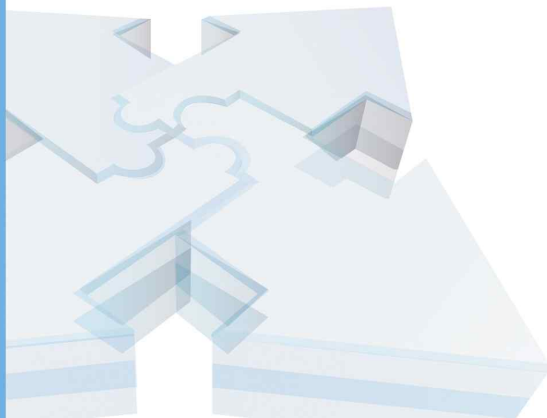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ISSUE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Amish)마을	3
	사회적경제로 살기 위한 교육	10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19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물가	7. 건설·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 (요약)	38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5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9
	2. 충남 주요경제지표	61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3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79
	2.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80
	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83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Amish)마을

신 동 호 I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위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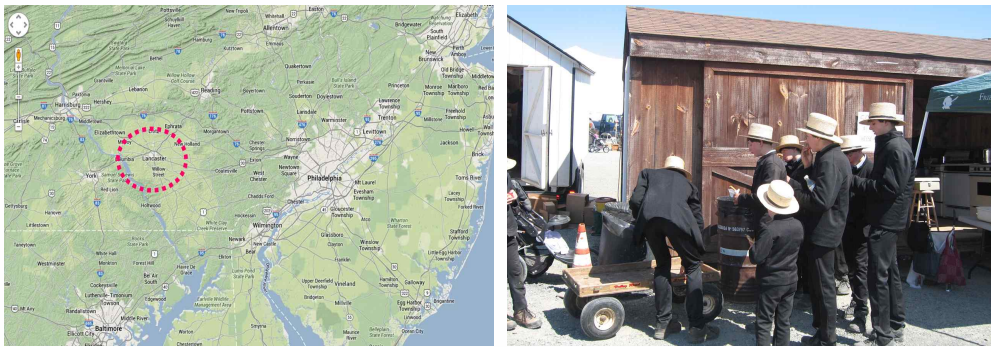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충남경제의 고속성장은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외생적 발전(exogenous development)방식에 힘입은 바 컸으며, 민선 4기까지의 도정 역시 이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은 양적측면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생적 발전방식이 지역에 가져오는 태생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다. 이를 테면 외부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성 심화나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본질적 목적 훼손 및 잠재역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도정은 지역발전의 목표가 단순한 생산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만이 아닌 환경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다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이른바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역내부의 자원동원능력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도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지역경제 선순환시스템 구축’ 연구는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동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나 이후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美 델라웨어주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가족과 함께 간간히 들리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인근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 지역의 아미쉬(amish) 마을이었다. 이 아미쉬 마을은 내발적 발전을 구분하는 여러 관점에서 볼 때 꼭 들어맞는 사례로 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동 발전방식의 핵심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원 및 전통기술을 통해 다양한 생업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이 꾀하여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발적 발전의 관점에서 랭카스터 지역의 아미쉬 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아미쉬(Amish) 공동체의 삶

1737년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주로 살던 아미쉬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美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lancaster)지역으로 처음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아이오와주를 포함한 20여개 州에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아미쉬들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정에서 생겨난 재세례파(anabaptist)로 매우 엄격한 종교관행을 지켜오는 탓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생활계율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데 이를 테면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와 같은 현대문명의 편의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독특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아미쉬들은 단추나 지퍼보다는 훅과 아이어가 달린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의 옷만을 입어 ‘hook and eyers’ 혹은 ‘plain people’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는 종교가 공동체의 생활양식 전반을 지배하는 것으로 경제활동 역시 다르지 않다.

1) 랭카스터(lancaster)지역은 美 동부 대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약 65마일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아미쉬 이외 일반시민들도 거주하고 있어 월마트나 아울렛 등의 상업시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도농 복합형 지역이다.

대부분의 아미쉬들은 노동집약적인 농·축산업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을 농기계가 아닌 말(馬)과 사람의 손으로 한다.²⁾ 물론 자급자족하고 남은 농·축산물들은 인근 도시로 유통되거나 자신들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 부스를 차려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데 맛과 질이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일부 아미쉬들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퀼트와 공예품, 그리고 가구 등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퀼트제품



공예품



축산농가



파머스 마켓

그리고 아미쉬 가정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7~8세가 되면 농사일이나 장사 등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한다. 실제로 아미쉬 마을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린 아미쉬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관광객들을 조랑말 마차에 태워 마을을 투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어는 아미쉬 관광의 일부로 아미쉬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²⁾ 농기구는 대장간에서 손으로 제작하며 농사와 교통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이용하나 승용차나 화물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체내에서 지정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 문명의 이기(利器)를 최소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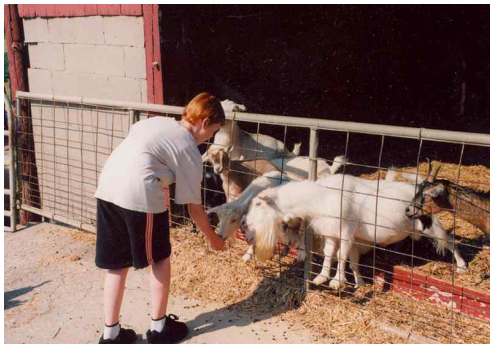
다양한 농촌체험(farm stay)프로그램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물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과 연계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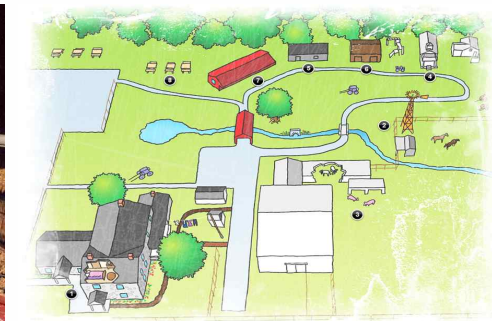
마차투어



아미쉬 뮤지엄



팜스테이



아미쉬 빌리지 투어맵

아미쉬 공동체 내 경제적 거래 관점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바로 머드세일(mud sales)이라 불리 우는 시장거래이다. 질척한 땅바닥 위에서 場이 선다하여 머드세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드세일(yard sale)과 유사하나 규모나 거래 품목이 훨씬 크고 다양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5일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나 대부분의 거래가 경매(au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상당한 중고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추측컨데 과거에는 주로 아미쉬들간에 다양한 생필잡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현재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³⁾

3) 2014년 랭카스터 지역의 머드세일(mud sale)은 총 18회가 열릴 예정이며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있다. 최근에는 지역민간소방회사(local fire company)에서 場이 선다.

필자가 가본 머드세일場에서는 퀴트제품, 골동품, 잡화, 마차, 가구, 화훼 그리고 다양한 농기구와 수공예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었다. 경매는 아미쉬들이 주관하는데 모든 경매물건에는 숫자로 적힌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각 물건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인이 경매소에 들러 대금을 지불하면 해당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場이 파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경매소 내에는 ‘items must be paid before removed from sale grounds’라는 문구가 공지되어 있다.



머드세일 전경



경매과정



경매물건



경매소 전경

👉 **아미쉬들이 마차나 체인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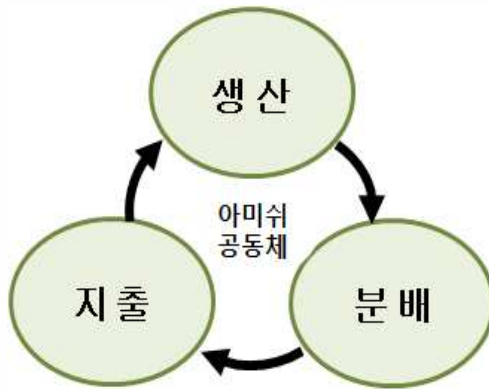


아미쉬들은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미쉬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랭카스터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마차나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전거에 체인이 없어 빨리 그리고 멀리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리막길을 제외한 평지에서는 발로 지면을 지쳐 동력을 얻고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올라가는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체인 달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멀리 갈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가 용이해지고 그럴수록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어 아미쉬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진한 발상이 통할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을 듯 싶다. 여담이지만 아미쉬들은 성인이 될 시점에 공동체에 ‘남을지 떠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데 설령 떠났다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이가 90% 정도는 된다 하니 어려서부터의 생활습관은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아미쉬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한 책자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차를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한 시간을 걸려서 간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를 갖게 된다면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헛되이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딱 한번만 시내에 다녀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마차를 자동차로 바꾸어보면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시내에 나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더 자주 다니게 되고 아주 사소한 일로도 시내에 나가게 된다. 그리고 곧 집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50마일을 운전하고 가는 것이 예전에 5마일을 가는 것만큼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해버리게 된다.

출처: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 들녘, pp86-87.

3. 끝내며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미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는 분배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거의 없이 지출로 이어지며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 back)되는 일련의 과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양태로 보아 경제적 관점에서 아미쉬 공동체를 자급자족형태의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아미쉬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축산농가를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수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방형 경제(open econom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내 내부자원과 전통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감소하고 금욕적인 아미쉬만의 생활양식 탓에 불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부수요에 대응한 생산활동은 영위하되 외부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 자연스레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아미쉬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표상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500여 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바꾸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로 살기 위한 교육

김 신 양 I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사회적경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

2013년 8월 21일,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환경분석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과제’라는 주제로 내부집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문보경집행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최근 동향과 과제인식’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조직 및 제도적 현황을 개괄해주었다. 정부보조금 의존성, 지속가능성 희박, 행정기관에 의해 유도된 협의체가 만들어지니 잘 안 되는 연대, 정책의 도구화 등. 이것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민낯이다. 그러나 발제자가 결국 던진 문제의식은 ‘어떻게 시민사회진영이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예전의 그것과 달랐다. 제도적 지원의 부족,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환경 등 밖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스스로 그 환경에 굴복했다는 자기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환경은 조건일 뿐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로써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주체의 생각과 그에 따른 실천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사회적경제국제리뷰(RECMA)를 발간하는 드라프리(Draperi)교수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남는다. “사회적경제를 할 때 ‘생각’과 ‘실천’의 오고감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라는 조직을 만들기 전 먼저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기에 실천 후에 단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⁴⁾

4) 2013년 6월,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학생들과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프랑스 연수를 갔을 때 드라프리교수를 만나 프랑스 사회적경제의 기원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소중

결국 무슨 뜻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자 했던가를 논한다는 것은 주체, 즉 사람(나)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한 많은 이들은 조직을 만들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후 협동조합을 만들며 사회적경제를 실천한다고 한다. 그렇게 앞 다투어 조직을 만들고 나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회적기업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사회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고민한다. 협동조합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조직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협동하는 삶을 사는 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지원하는 조직들이나 관련 연구자나 학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각종 교육이나 토론회 등 행사에 가면 준비된 다과는 일반대기업의 상품이다. 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이들 중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자치단체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담당공직자들 중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가 드물고, 그 조직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자신도 경험이 없으면서 누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다른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철학, 가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이런 것이 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고, 그 조직들간의 연대’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철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경제를 말하며 ‘조직’만 말했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주체는

한 시간을 가졌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것은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⁵⁾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지역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면서 노동부가 기본 기획을 하고 강사풀까지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처음에는 이론, 그 다음엔 마케팅기법, 사례 듣기, 행정 등. 간혹 현장 방문으로 구색 맞추기.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배워서 되는 것일까? 사회적 자원동원이란 주변의 자원을 재조직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부터 자원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묻혀있는 것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 넣는 과정이다. 공장식 생산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마치 사회적기업인을 생산해내듯.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육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유명세를 타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에 의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그의 말로 내 생각을 대리하는 방식의 교육.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협동조합을 인가받았다고 사회적경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인 운영, 연대, 그 모든 실천의 형식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들과 평등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옆의 사람과 협동의 관계로 만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용하고 함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사회적경제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장으로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이 함께하는 ‘만남포럼’ 모임에서 평소 학습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하승우선생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다. “교육은 자기상식이 강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틀을 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 2013년 8월 21일에 개최된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노동연구원 황덕순박사님의 발언 인용.

다른교육의 시도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가 되고, 지식이 지혜로워 지려면 체험이 있어야 한다." 평소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말씀이다. 체험이란 그냥 보고 듣고 조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그냥 느끼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선 것이다. 그 삶을 통째로 살아볼 순 없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며 내 안에 생기는 반응이 자각과 깨달음을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교육을 시도해보았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자각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내 삶을 비추어볼 수 있는 교육,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인상 쓰는 교육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그것을 하는 '다른경제학습 동아리'로 이름붙이고 제안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던진 나의 제안에 응답하고 함께 모험을 시도해보자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회 4시간씩, 총 6회에 걸친 대장정을 함께, 그것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서. 각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 온 사람들이 모였다.

한신대동아리는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의 장을 만드시는 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고 책을 내는 분,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일반기업에서의 일을 관두고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후배가 만났다. 월요일, 세종마을 푸르메센터에 있는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한 모임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 현장에서 돈 잘 벌다가 다른교육을 찾으시는 분, 재테크와 주식만을 주로 다루는 경제부 기자일에 회의를 느껴 다른 경제를 찾는 기자, 이렇게 다섯이 모였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상근자들 6명이 함께 조직의 사업으로 이 교육을 배치하여 평일 근무시간에 실시하였다. 조직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이들은 따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면서 활동하는 학생이거나, 과거에 사회활동을 하다가 살림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거나,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일하는 등 다 다르다. 모두가 다르지만 같은

열망으로 모였다. 그 모두는 그 다름으로 인해 한사람 한사람이 빛나고 소중하다. 달라서 맞추기 힘든 것이 아니라 다름에도 같이 모인 그 이유가 더 소중하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들

5개월의 대장정이 끝난다. 우리 다른경제학습동아리는 1월 초, 한 해의 자기계획을 나누고 서로 덕담을 해주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분은 그동안 일하는 곳에서 사회의 아픔을 많이 보기에 일상에서는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일부러 신문이나 뉴스 등을 피했는데 이제 밖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국사를 가르치다 오랫동안 사교육시장에 계셨던 분은 매주 3회 천안의 한 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건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이들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공교육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기도 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딸이 남부국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가웠고, 서울집을 청산하고 지역에 내려가신다고 하셨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계신 분은 올해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하신다. 또 다른 분은 쉬기 위해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관광객으로 쉬고 싶었으나 그들의 어려운 삶이 눈에 보이니 개발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쉬지도 못하고 공부한 것도 아닌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자 한다. 그 무엇이 꼭 일이나 직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나의 삶은 나만 보며, 나만을 위해 삶으로써 내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 주변을 살피고, 남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으며, 그렇게 공동의 삶을 지어가면서 내가 되어가는 것이리라.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을 더 자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걸 편히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고, 그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망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다른경제학습동아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곳이 되길 소망한다.

새로운 교육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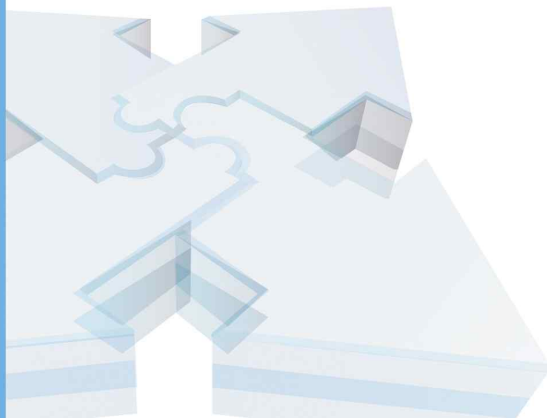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남강 이승훈선생이 중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교육입국운동으로 식민지를 벗어나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선생을 만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강압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자결하고 하는 것은 낡은 군대로 적을 막으려는 것밖에 안 된다.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새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새 군대가 신식학교일 것이다. 서도에 중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은 적의 침공을 꺾는 강력한 연대 하나를 새로 조직하는 일이 된다”(김기석의 ‘남강 이승훈’, p. 110). 도산 안창호선생은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지배를 벗어나야겠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고, 그 자각은 교육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의 생각에 감명을 받은 이승훈선생은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오산학교이다. 많은 이들이 마이크로크레딧의 기원인 그라민뱅크(Grameen Bank)를 만든 사람이 방글라데시의 유누스(Yunus)교수인 것을 알고, 가장 유명한 사회적기업가로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을 예로 든다. 그러면서도 민족의 위기의 시대에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되찾을 사람을 양성한 이승훈은 모른다. 시인 백석과 김소월, 사상가 함석헌과 유영모를 배출한 그 학교를 세운 한국의 사회적기업가이자 사회적경제를 실천한 남강이승훈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의 정신을 일깨운 안창호의 교육입국운동을 말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 사회적경제를 구축하려면 우리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그 역사를 만든 이들의 사상과 실천을 알고 교육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경제학교육방식이 아닌 새로운 교육운동을 시작하며 실천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람이 사회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 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홀로가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참다운 만남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만남의 장이 학습의 장, 실천의 장이 어우러진 교육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간절히 바란다.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11월)			소비(11월)	물가(12월)		대외거래(12월)		고용(12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 달러)	수입액 (백만 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06.9	106.1	130.5	116.0	106.76	107.92	48,013	44,366	25,736	24,962	3.0
서울	92.9	94.0	107.6	114.8	106.66	108.24	5,152	11,483	5,351	5,162	3.5
부산	99.9	98.6	154.0	110.9	108.52	108.88	1,073	1,109	1,679	1,629	2.9
대구	114.1	116.0	185.6	131.6	108.31	108.84	676	303	1,251	1,206	3.6
인천	104.1	102.4	142.6	107.9	105.62	106.76	2,511	3,534	1,504	1,448	3.8
광주	110.3	110.9	107.5	108.5	106.67	107.74	1,391	370	743	728	2.1
대전	102.5	101.8	110.7	118.8	106.25	107.57	346	321	765	743	2.8
울산	111.9	111.7	117.3	111.5	107.27	107.87	7,773	6,713	559	542	3.0
경기	117.9	120.6	125.9	119.9	106.14	107.56	9,189	9,165	6,187	6,019	2.7
강원	110.2	109.4	181.8	125.9	106.44	107.57	180	107	656	635	3.1
충북	129.3	117.2	170.1	132.4	107.10	107.90	1,143	547	776	751	3.3
충남	111.6	111.3	139.0	149.5	107.05	107.93	5,550	2,953	1,137	1,106	2.7
전북	104.9	105.3	105.6	101.5	106.97	107.85	845	413	855	839	1.8
전남	98.5	99.7	107.0	96.1	107.94	108.31	3,406	3,674	918	896	2.5
경북	98.2	94.5	131.3	100.8	107.33	107.78	4,280	1,351	1,388	1,336	3.8
경남	96.2	93.9	123.8	114.6	106.73	107.87	4,486	2,296	1,645	1,606	2.4
제주	104.7	105.4	130.0	110.4	106.21	107.22	12	25	323	317	1.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11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 선행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 11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9p 상승
- 11월 생산과 출하가 증가한 가운데 재고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2월 물가 및 고용은 소폭의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판매액, 대외거래는 등이 개선되며 충남지역 경기를 견인함
- 1월 기업경기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경기는 1월 설명절에 대한 기대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경기

- 11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2% 상승한 116.5를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대비 0.9p 상승
- 1월 업황전망BSI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하락(제조업 82, 비제조업 80)
-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자금부족, 환율 등이 주된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됨
- 1월 시장경기전망은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은 상승한 반면, 업황, 매출, 마진, 자금사정 등 주요 항목에서 하락함

산업활동

- 11월 광공업 생산지수 4.8%(113.7), 출하지수 5.2%(115.9), 재고지수 14.5%(136.5)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의약품, 음료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제1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소비 및 물가

- 11월 대형소매점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한 151,629백만원, 지수는 149.5
- 12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85,737대로 전월대비 0.1%(+606대) 증가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0.9%), 생활물가지수 107.1(+0.2%)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수출입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55억 50백만달러, 반도체 20.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7.0%, 석유제품 5.0%, 석유화학중간원료 37.9% 등)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29억 53백만달러, 원유 -10.4%, 석유제품 2.8%, 석탄 6.2%, 식물성물질 10.5%)
- 12월 무역수지는 25억 97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1억 50백만달러 감소)

고용

- 12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1,137천명,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 대비 1.9%p 증가한 61.8%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1,106천명(농림어업 108천명, 광공업 253천명, 건설업 7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199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71천명 등)
- 12월 실업률 2.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자 30천명으로 전월보다 1천명 증가

금융

- 11월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50조 6,718억원으로 증가세 지속, 여신 잔액은 42조 4,000 억원으로 증가
- 11월 금융기관 총 수신 증감액 +1,153억원, 여신 증감액 +1,695억원
- 11월 어음부도율 0.04%로 전월대비 0.03%p 하락
- 11월 부도금액 4억 4천만원으로 전월보다 2억 2천만원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12월 건축허가면적 738,469㎡로 전월대비 52.0% 증가, 착공면적은 335,976㎡로 8.1% 감소
-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02.6으로 전월대비 0.5%, 전세가격지수 105.1로 전월대비 1.1%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
- 12월 토지거래는 15,8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0%, 면적은 50.8% 각각 증가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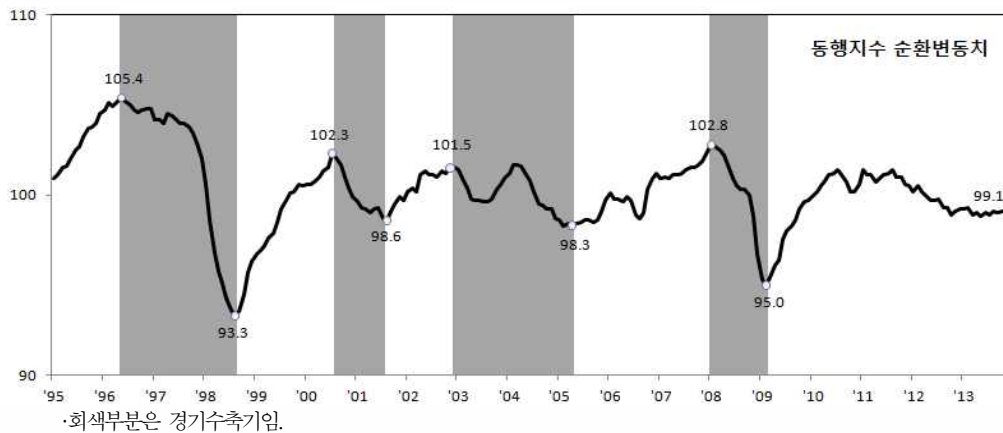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11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한 116.1임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대비 보합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10=100)

구분	'13.4월	5월	6월 ^p	7월	8월	9월 ^p	10월 ^p	11월 ^p
○ 동행종합지수	112.9	113.2	113.9	114.2	114.9	115.1	115.7	116.1
·전월비(%)	0.5	0.3	0.6	0.3	0.6	0.2	0.5	0.3
○ 순환변동치	99.0	98.8	99.0	98.9	99.1	99.0	99.1	99.1
·전월차(p)	0.1	-0.2	0.2	-0.1	0.2	-0.1	0.1	0.0



- 11월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지수(역),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한 116.7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대비 0.2p 상승

선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분	'13.4월	5월	6월 ^p	7월	8월	9월 ^p	10월 ^p	11월 ^p
○ 선행종합지수	111.3	112.0	113.0	113.9	114.7	115.0	115.9	116.7
·전월비(%)	0.5	0.6	0.9	0.8	0.7	0.3	0.8	0.7
○ 순환변동치	99.6	99.9	100.5	100.9	101.2	101.0	101.5	101.7
·전월차(p)	0.1	0.3	0.6	0.4	0.3	-0.2	0.5	0.2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9p 상승한 100.9를 나타냄
 -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2% 상승한 116.5를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10=100)

구 분	'1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p	10월 ^p	11월 ^p
○ 동행종합지수	112.0	112.4	112.8	113.1	113.7	114.1	115.2	116.5
·전월비(%)	0.8	0.3	0.4	0.2	0.5	0.4	0.9	1.2
○ 순환변동치	98.9	99.0	99.1	99.1	99.3	99.4	100.0	100.9
·전월차(p)	0.5	0.1	0.1	0.0	0.2	0.1	0.6	0.9

주 : p는 잠정치임.

- 11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입액 등 모든 구성지표가 지난달에 이어 상승함
 - 비농가취업자수(+0.6%), 산업생산지수(+0.8%),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6.9%), 전력사용량(+1.3%), 수출액(+0.8%), 수입액(+2.1%)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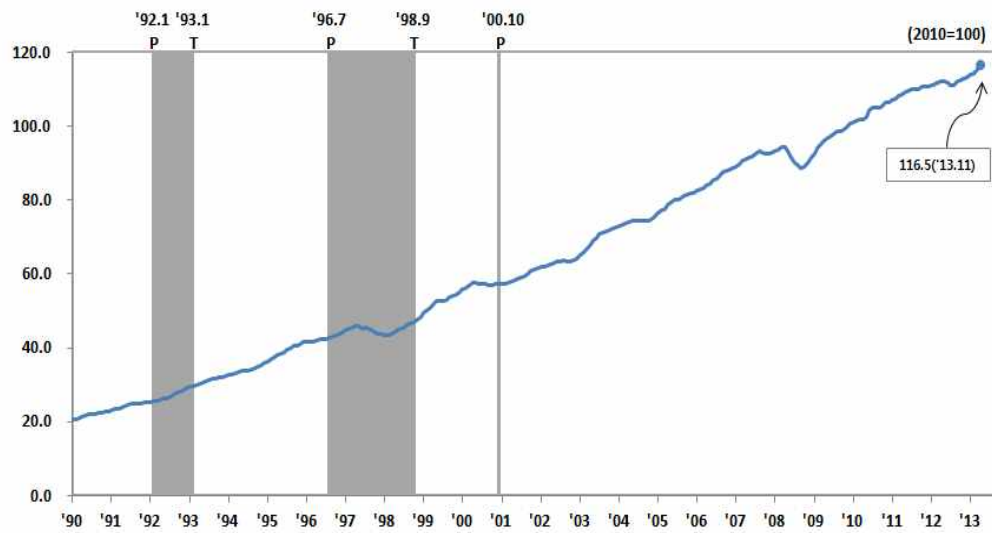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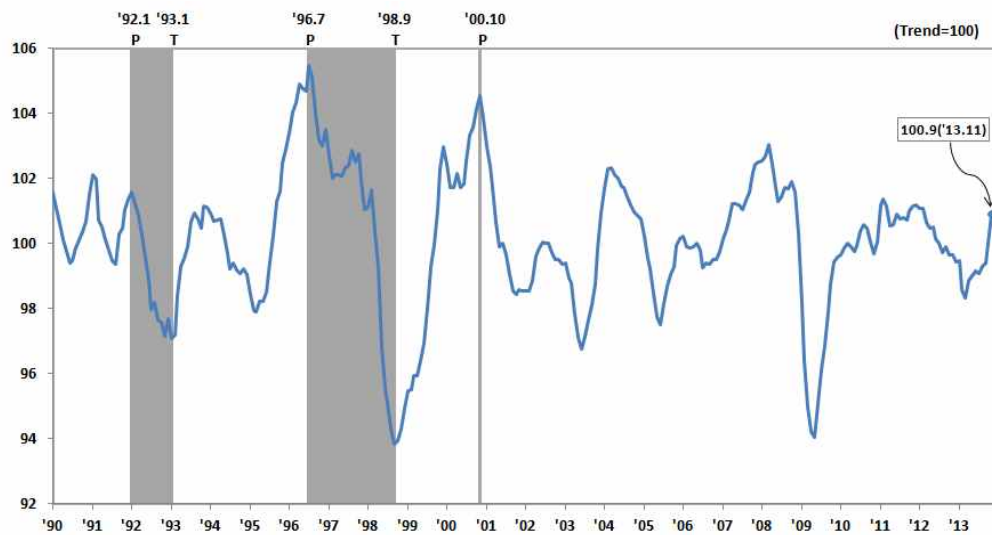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3.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p	10월 ^p	11월 ^p
비농가취업자수	1.7	1.4	0.6	0.5	0.5	0.6	0.1	0.6
산업생산지수	-0.5	0.0	-0.4	0.7	1.4	0.8	1.4	0.8
대형소매점판매지수	1.1	-0.5	1.0	-1.9	-0.6	1.0	4.0	6.9
전력사용량	1.1	1.1	0.8	0.6	1.4	0.9	1.8	1.3
수출액(실질)	-2.7	-1.3	-0.6	0.3	1.9	0.8	3.8	0.8
수입액(실질)	3.5	-1.9	1.2	0.4	-0.6	-2.2	0.1	2.1

주 :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1월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전월대비 하락
 - 제조업 업황BSI는 83으로 전월(86)보다 3p, 자금사정전망BSI 90로 전월(96)보다 6p 각각 하락
- 1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와 자금사정전망BSI도 모두 전월대비 하락
 - 비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81)보다 3p, 자금사정전망BSI는 85로 전월(88)보다 3p 각각 하락
 - 충남의 제조업, 비제조업 업황 모두 소폭 하락함
 - BSI 추이가 기준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은 상태임

제조업의 주요 제조업의 주요 BSI 전망 추이

구분	'1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¹⁾	81	75	79	83	84	85	82(79)	-3(+1)
충 남 ²⁾	82	76	80	83	84	86	83	-3
매출	98	91	93	93	98	101	94	-7
생산	108	99	95	95	100	107	98	-9
신규수주	93	86	93	96	102	103	99	-4
채산성	91	88	89	95	91	94	89	-5
제품재고	107	116	109	114	109	112	111	-1
인력사정	91	88	87	89	88	93	94	+1
자금사정 ¹⁾	98	94	92	94	92	95	90(88)	-5(0)
충 남 ²⁾	98	95	92	94	92	96	90	-6
외부자금수요	103	109	109	105	104	101	102	+1
자금조달사정	101	100	101	102	97	97	94	-3

주 : ()내는 전국 기준, 업황 및 자금사정을 제외한 수치는 대전충남의 통합 수치임.

1) 대전·충남 업황 수치.

2) 기존 대전·충남 통합하여 공표하였던 업황 및 자금사정BSI가 2012년 1월부터 지역이 분리되어 공표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BSI 전망 추이

구분	'1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70	72	76	77	76	83	80(70)	-3(-2)
충 남	67	70	77	76	73	81	78	-3
매출	76	79	84	82	83	86	90(78)	+1(-2)
채산성	83	84	83	84	83	88	87(80)	-1(-2)
인력사정	82	79	87	86	89	82	89(86)	+7(-1)
자금사정	82	84	86	88	88	90	85(80)	-5(-1)
충 남	80	84	83	89	84	88	85	-3
외부자금수요	103	100	101	102	100	103	103	0
자금조달사정	92	91	95	93	93	96	93	-3

$$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 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시장경기 동향]

- 12월 충남의 시장경기는 전월보다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은 상승한 반면, 업황, 매출, 마진 등 주요 항목은 하락
 - 상승지수 : 매입원가(+5.1p), 상품판매가격(+1.4p)
 - 하락지수 : 업황(-24.4p), 매출(-29.4p), 마진(-19.9p), 자금사정(-10.2p), 구매고객수(-33.1p)
 - 한겨울 계절요인으로 유동인구 및 소비 감소하였는데 특히, 의류 및 신발 제품의 소비가 눈에 띈
- 1월 시장경기 전망은 업황, 매출, 마진, 매입원가, 상품가격 등 주요 항목 모두 상승함
 - 상승지수 : 업황(+10.3p), 매출(+10.7p), 마진(+7.6p), 매입원가(+9.2p), 상품판매가격(+1.7p), 자금사정(+13.0p), 구매고객수(+8.4p)
 - 수산물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 및 1월 설 명절 특수로 인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함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전망)
업황	전국	47.9	41.6	68.6	58.1	67.3	53.1	74.6
	충남	49.4	53.9	84.6	55.4	79.9	55.5	88.9
매출	전국	47.6	40	70.2	58.0	71.9	55.8	76.9
	충남	49.7	53.2	82.2	58.3	87.9	58.5	85.0
마진	전국	52.3	43.8	67.7	64.3	72.8	65.2	79.4
	충남	56.2	55.6	75.5	68.6	86.5	66.6	82.8
매입 원가	전국	116.6	119.1	123.4	111.6	114.8	114.1	113.9
	충남	120.4	124.5	124.0	107.8	110.2	115.3	120.0
상품 판매가격	전국	94.2	91.9	102.2	94.6	95.7	95.7	100.3
	충남	96.9	104.1	104.8	91.1	99.8	101.2	108.5
자금 사정	전국	54.2	44.7	64.2	60.5	68.6	58.5	71.6
	충남	58.3	54.2	74.6	57.6	76.3	66.1	89.3
구매 고객수	전국	44.8	40.7	68.8	57.8	68.6	52.4	76.4
	충남	49.7	52.4	86.6	55.4	81.2	48.1	87.7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11 중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전월대비 3.9% 감소
 - 자동차, 의약품, 음료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제1차금속,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 11월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5.2%,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4.5% 각각 증가
 - 출하는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제1차금속,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 재고는 제1차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의료정밀광학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자동차,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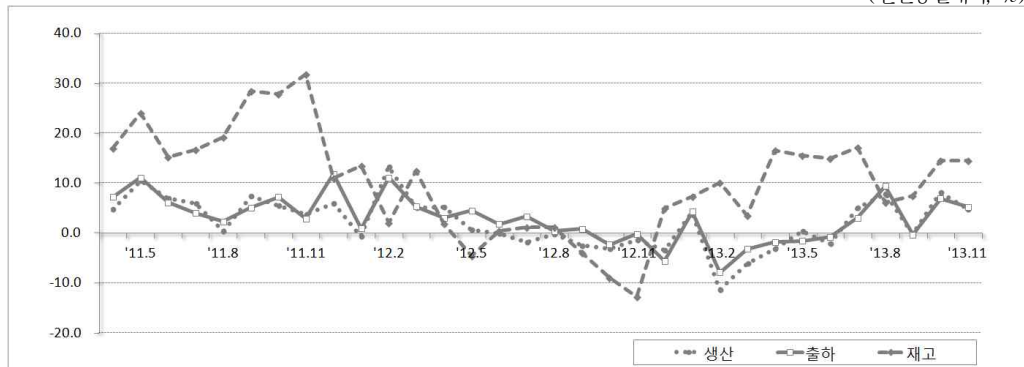
(2010=100.0, %)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 산	111.6	102.5	99.7	111.2	110.2	-1.3	-0.9
	출 하	109.5	102.9	99.6	110.0	108.8	-0.6	-1.1
	재 고	120.4	123.6	124.9	126.4	129.9	7.9	2.8
충남	생 산	108.5	109.0	103.3	118.3	113.7	4.8	-3.9
	출 하	110.5	114.3	107.3	119.4	115.9	5.2	-2.9
	재 고	119.2	129.6	128.3	136.0	136.5	14.5	0.4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원지수).

충남의 광공업 산업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11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3.6%, 전월대비 10.6% 각각 증가
 -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51,629백만원, 지수는 149.5로 나타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9%, 전월대비 9.7% 각각 증가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성금액, 불변지수, 2010=100,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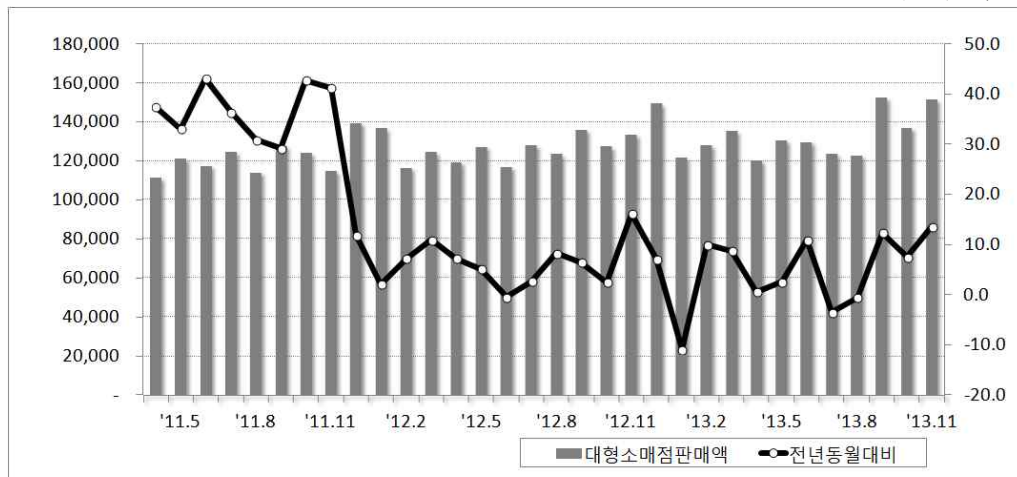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1월	8월	9월	10월 ^o	11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판매액지수	113.6	103.2	115.8	109.3	116.0	2.1	6.1
	판매액	6,451,427	5,914,122	6,723,541	6,300,912	6,735,238	4.4	6.9
충남	판매액지수	134.8	122.9	150.6	136.3	149.5	10.9	9.7
	판매액	133,475	122,872	152,593	137,074	151,629	13.6	10.6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12.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충남의 대형소매점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주 : 대형소매점판매액(좌측), 전년동월대비(우측).

[자동차 등록]

- 12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1% 각각 증가
 - 12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85,737대로 전년동월보다 29,986대 증가, 전월보다 606대 증가
 - 승용차(+0.2%), 특수화물(+1.2%), 화물차(+0.2%)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승합차(-0.1%)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8.5%), 승용차(+4.4%), 화물차(+2.2%), 각각 증가
-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 지속에는 2012.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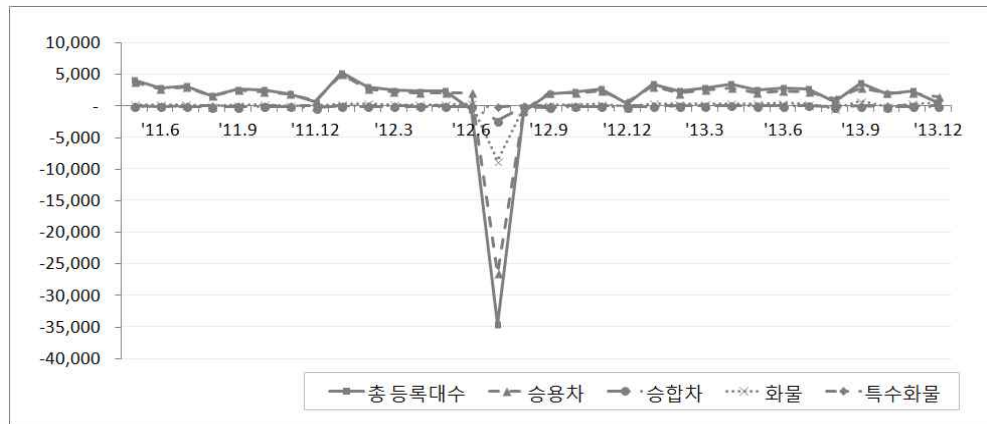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55,751	880,749	882,694	885,131	885,737	29,986	606	
차종별	승용	615,770	637,043	639,168	641,222	642,682	26,912	1,460
	승합	46,751	47,046	46,904	46,843	46,815	64	-28
	화물	190,331	193,591	193,541	193,959	194,441	4,110	482
	특수화물	2,899	3,069	3,081	3,107	3,145	246	38
용도별	자가용	815,822	840,235	841,798	844,195	846,133	30,311	1,938
	관용	4,094	4,279	4,321	4,280	4,254	160	-26
	영업용	35,825	36,235	36,575	36,656	36,641	816	-15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과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12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전월대비 보합
 - 농축수산물(-5.2%)은 하락한 반면, 공업제품(+1.0%), 전기·수도·가스(+4.4%), 서비스(+1.5%)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07.1로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전월대비 보합
- 신선식품지수는 97.4로 전년동월대비 13.8% 하락, 전월대비 1.3% 상승
 - 신선어개(+0.8%)는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22.6%), 신선과실(-15.8), 기타신선(-17.9%) 등 주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소비자물가 동향

(2010=1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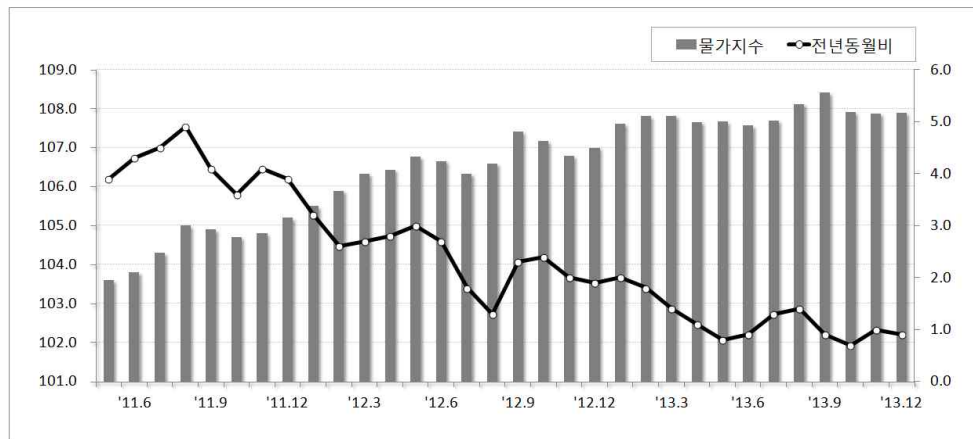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6.7	108.1	107.8	107.8	107.9	1.1	0.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7.0	108.4	107.9	107.9	107.9	0.9	0.0
	상품 성질별	상 품	109.2	110.6	109.6	109.6	109.5	0.3	0.0
		서비스	104.9	106.3	106.3	106.3	106.4	1.5	0.1
	생활물가지수		106.8	108.0	107.2	107.0	107.1	0.2	0.0
	신선식품지수		112.9	110.4	1014.2	96.1	97.4	-13.8	1.3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주 : 2013.11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으로 수치변동(2012.1월~ 현재)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12월 충남의 수출은 55억 50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전월대비 0.5% 감소
 - 반도체, 석유화학중간제품,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이 선진하고 있으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자응용기기 등이 부진하며,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2월 충남의 수입은 29억 53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4.4% 각각 증가
 -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원유의 수입이 감소하며 겨울철 수입 증가폭을 소폭 완화하였으나 석탄, 석유제품 등의 수입은 증가
- 12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5억 97백만달러 흑자를 기록
 - 전월에 비해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이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전월(27억 47백만불)보다 1억 50백만달러 흑자 감소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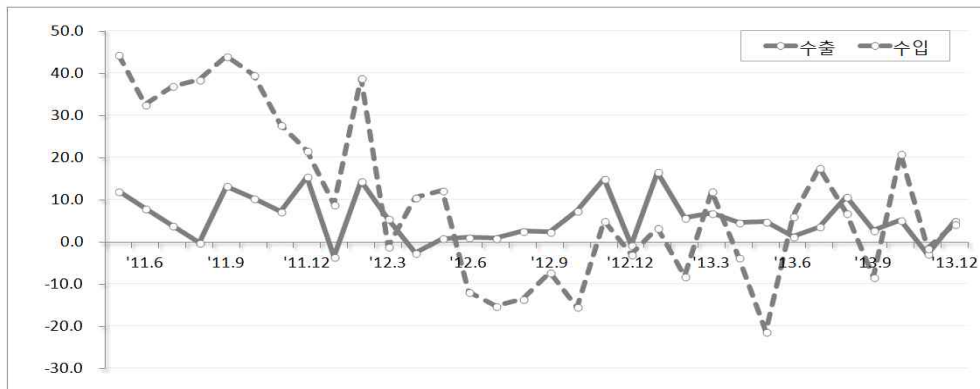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P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4,875	44,659	50,487	47,878	48,013	7.0	0.3
	수입	43,069	41,054	45,611	43,104	44,366	3.0	2.9
	무역수지	1,806	3,606	4,875	4,774	3,647	-	-
충남	수출	5,287	5,714	6,218	5,576	5,550	5.0	-0.5
	수입	2,833	2,746	2,896	2,829	2,953	4.2	4.4
	무역수지	2,454	2,968	3,322	2,747	2,597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12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출액	증감률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출총액	5,550	5.0	-0.5	100.0
1	반도체	1,782	20.9	4.0	32.1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00	-27.0	-2.1	14.4
3	석유제품	358	5.0	-2.7	6.5
4	석유화학중간원료	280	37.9	14.8	5.0
5	전자응용기기	243	-37.4	-33.8	4.4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2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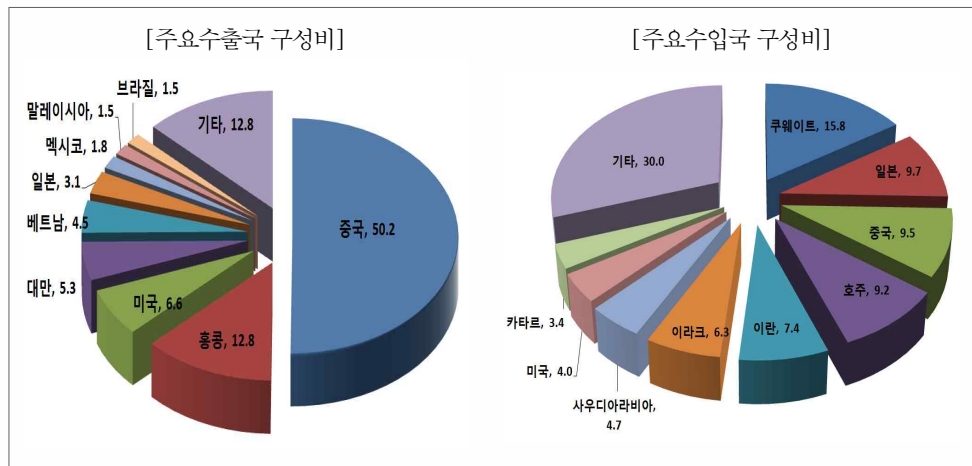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1)	수입액	증감률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입총액	2,953	4.2	4.4	100.0
1	원유	1,315	-10.4	-8.8	44.5
2	석유제품	329	2.8	48.9	11.1
3	석탄	188	6.2	29.7	6.4
4	식물성물질	63	10.5	16.7	2.1
5	정밀화학원료	60	22.4	25.0	2.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2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용

[경제활동인구]

- 12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839천명으로 전년동월(1,759천명)보다 80천명(+4.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137천명으로 전년동월(1,054천명)보다 83천명(+7.8%)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1.9%p 증가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5,139	26,186	26,268	26,230	25,736	2.4	-1.9
	충남	1,054	1,216	1,208	1,204	1,137	7.8	-5.6
	남자	636	720	724	726	697	9.5	-4.1
	여자	418	496	484	478	440	5.2	-8.0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30.1	62.1	62.2	62.1	60.9	0.8	-1.2
	충남	59.9	66.5	65.9	65.6	61.8	1.9	-3.8
	남자	72.4	78.4	78.6	78.8	75.4	3.0	-3.4
	여자	47.5	54.4	53.1	52.3	48.1	0.6	-4.2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 전월 증감을 나타냄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12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1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며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 되는 모습을 보이나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함
 - 충남의 청년층 취업자는 183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2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는 12천명(+6.9%), 고령층 취업자는 28천명(+11.2%)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광공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 주요 산업에서 증가함
 - 농림어업 108천명(-7.0%), 도소매·음식숙박업 199천명(-0.1%)은 전년동대비 각각 감소, 광공업 253천명(+11.0%), 건설업 74천명(+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71천명(+12.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1천명(+18.5%)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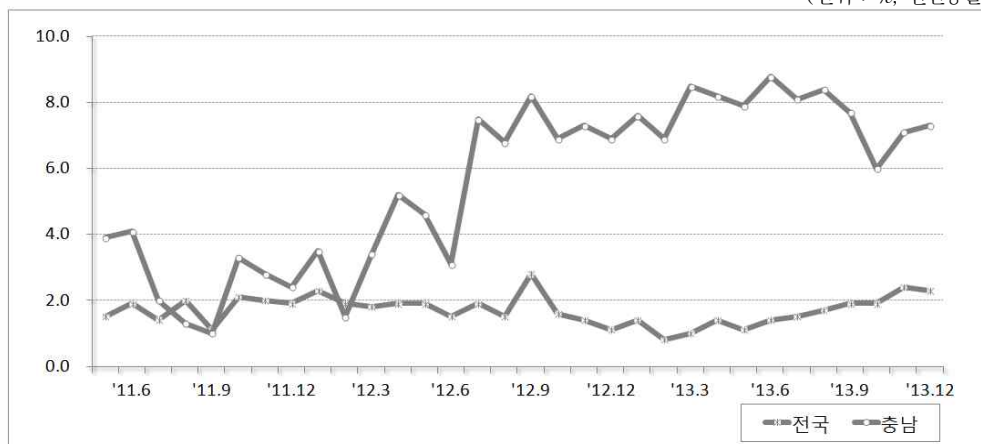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국	24,402	25,466	25,545	25,530	24,962	-2.2	2.3
	충남	1,031	1,184	1,177	1,176	1,106	7.3	-5.9
청년층 (15~29세)	전국	3,755	3,813	3,773	3,816	3,808	1.4	-0.2
	충남	171	173	169	180	183	6.9	1.9
고령층 (55세이상)	전국	5,133	5,971	6,038	5,977	5,521	7.6	-7.6
	충남	249	351	349	338	277	11.2	-18.0
	55~59세	95	114	111	109	108	14.6	-0.6
	60세이상	154	237	238	229	169	9.3	-26.4
산업별	농림어업	116	199	195	179	108	-7.0	-39.7
	광공업	228	246	247	252	253	11.0	0.4
	건설업	73	77	74	74	74	2.1	-0.3
	도소매 음식숙박업	199	201	197	203	199	-0.1	-1.8
	사업·개인·공 공서비스업	330	362	364	366	371	12.4	1.2
	전기·운수·통 신금융업	86	100	100	101	101	18.5	0.0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12월 충남의 실업자는 30천명이며,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5%p, 전월대비 0.3%p 각각 상승

6. 금융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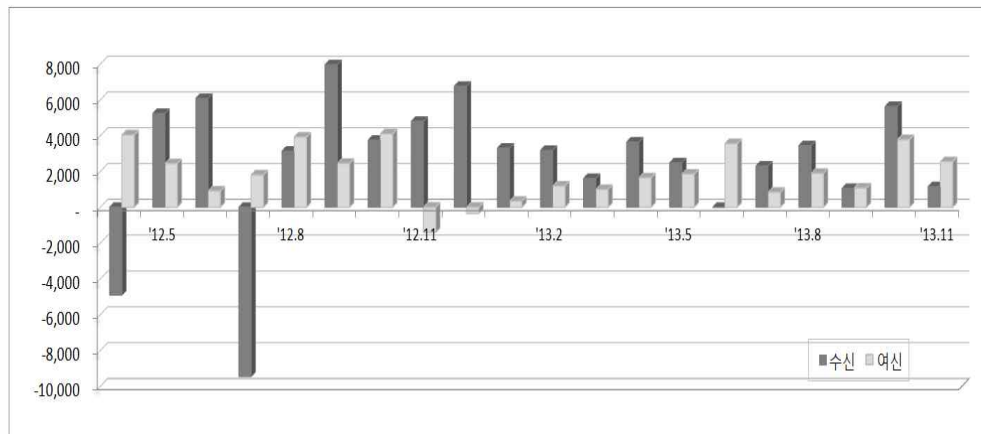
- 11월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9조 6,964억원, 비은행기관 30조 8,929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50조 6,718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지자체, 교육청의 자금 인출 등으로 정기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10월 +1,432억원 → 11월 +328]
 - 비은행기관 : 농수산물 판매대금 유입 둔화, 공공기관의 단기 자금 인출 등으로 증가폭 축소[10월 +4,194억원 → 11월 +825억원]
 - 총 수신증감액 : 10월 +5,626억원 → 11월 1,153억원

[여신]

- 11월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6억 3,302억원, 비은행기관 16조 698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2조 4,000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대기업 대출 감소 전환, 중소기업 대출 부진, 주택대출 등 증가폭 둔화 [10월 +3,691억원 → 11월 +1,695억원]
 - 비은행기관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은 가계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10월 +82억원 → 11월 +848억원]
 - 총 여신증감액 : 10월 +3,773억원 → 11월 +1,695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11월 충남의 부도율은 0.04%로 전월대비 0.03%p 하락
 - 지역별로는 당진 0.15%, 아산 0.08%, 홍성 0.06%, 천안 0.03%로 부도율이 나타남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연중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충남	0.38	0.75	0.23	0.17	0.07	0.04	-0.03	-0.71
천안	0.47	1.83	0.16	0.19	0.06	0.03	-0.03	-1.80
공주	0.41	0.22	-	-	-	-	-	-0.22
홍성	0.09	0.00	0.08	0.08	-	0.06	0.06	0.06
아산	0.35	0.24	1.57	0.81	0.14	0.08	-0.06	-0.16
당진	1.49	0.00	-	0.05	0.23	0.15	-0.08	0.15
서산	0.01	0.00	-	-	-	0.03	0.03	0.03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1월중 부도금액은 4억 4천만원으로 전월보다 2억 2천만원 감소
 - 제조업 : 10월 3억 2천 → 11월 2억 7천
 - 건설업 : 10월 1억 6천 → 11월 8천
 - 서비스업 : 10월 1억 5천 → 11월 9천
- 11월중 부도업체수는 전월과 동일하게 없음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11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75.3	1.4	8.8	3.2	2.7	-0.5	-72.6
	건설업	1.1	11.9	2.4	1.6	0.8	-0.8	-0.3
	서비스업	3.9	4.8	3.6	1.5	0.9	-0.6	-3.0
	기 타	1.0	0.1	1.3	0.3	-	-0.3	-1.0
	합 계	81.3	18.2	16.1	6.6	4.4	-2.2	-76.9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1	-	-	-	-	-	-1.0
	건설업	-	1	2	-	-	-	-
	서비스업	2	4	1	-	-	-	-2.0
	기 타	-	-	-	-	-	-	-
	합 계	3	5	3	-	-	-	-3.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11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62개로 전월(328개)보다 76개 감소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12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738,469㎡로 전년동월대비 95.1% 감소, 전월대비 52.0% 증가
 - 12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47.6%), 상업용(15.3%), 공업용(9.9%)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14,929,360	841,477	760,401	485,898	738,469	-95.1	52.0	
주거용	938,991	379,360	296,187	128,203	351,757	-62.5	174.4	
상업용	216,303	109,592	165,861	110,495	112,874	-47.8	2.2	
농수산업	63,096	19,687	31,260	35,183	28,323	-55.1	-19.5	
공업용	81,714	184,113	85,662	111,078	73,092	-10.6	-34.2	
기타	192,826	148,725	181,431	100,939	172,423	-10.6	70.8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통계 현황,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 12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335,976㎡로 전년동월대비 77.5% 전월대비 8.1% 각각 감소
 - 12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0.4%), 상업용(22.3%), 주거용(22.0%)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1,492,930	866,764	1,426,420	365,483	335,976	-77.5	-8.1	
주거용	938,991	316,301	872,767	84,593	74,023	-92.1	-12.5	
상업용	216,303	118,698	130,313	85,881	74,919	-65.4	-12.8	
농수산업	63,096	12,086	31,585	28,049	59,999	-4.9	113.9	
공업용	81,714	125,636	137,751	124,941	102,145	25.0	-18.2	
기타	192,826	294,043	254,004	45,019	24,890	-87.1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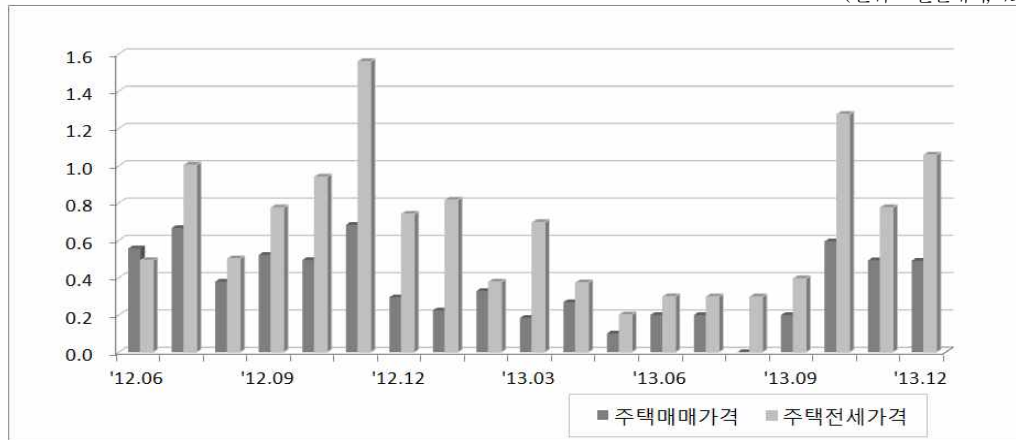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 통계 현황,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12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2.6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충남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립주택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지속되는 모습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0.88%), 천안 동남구(0.51%) 지역
- 12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05.1로 전년동월대비 7.1%, 전월대비 1.1% 각각 상승
 - 충남은 천안 서북구에서 주변 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영 강업 입주로 관련 근로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가격이 상승하였고, 천안 동남구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및 세조이 근로자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지속되며 전세가격이 상승함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서북구(1.45%), 천안 동남구(1.29%) 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12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15,80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0%, 전월대비 38.6% 각각 증가
 - 토지거래 면적은 22,775천㎡로 전년동월대비 50.8%, 전월대비 94.7% 각각 증가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필지	13,509	9,165	12,292	11,403	15,804	17.0	38.6
면적	15,102	9,945	14,058	11,699	22,775	50.8	94.7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국토교통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의 FOMC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일부 신흥국 성장 둔화 우려, 채무한도 협상(채무한도 적용유예 등) 등이 위험 요인으로 상존
- 그 밖에도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 유로지역의 높은 실업률 등도 일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미국

- 미국 경제는 '13. 2/4분기 GDP성장률(확정치)이 2.5% 성장에 이어 3/4분기 4.1% 성장
- 미국의 산업생산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판매, 비농업부문 취업자의 회복 등 투자·소비·고용부문 회복 모멘텀이 확대되는 모습

중국

- 중국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7.8%로 전분기(7.5%)보다 소폭 개선
- 최근 산업생산, 소비 등 실물지표의 꾸준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정치·사회 등 전면적 개혁에 대한 2014년도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함(산업구조조정, 지방정부 채무관리, 지역발전, 취업문제 등)

일본

- 일본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0.3%(전기비)로 전분기(0.9%)에 비해 회복세 주춤
- 물가는 안정적이고 산업생산, 소비 등 민감부문의 회복세와 더불어 대외거래의 증가폭이 확대됨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13. 3/4분기 GDP성장률이 0.1%로 전분기(0.3%)에 이어 2분기 연속 회복세
- 독일 등 일부 국가가 그간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실업률이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불안요인은 상존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4.1% 성장
- 11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판매도 꾸준히 증가하며 경기 회복의 청신호를 보내고 있음
 - 최근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상승하였고, 기업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ISM제조업지수는 12월 57.0을 기록
 - * ISM제조업지수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 한 것.
 -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7% 증가하고,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82.5을 기록하여 전월(75.1)에 비해 상승하는 등 소비회복 모멘텀이 지속
 - 11월 실업률은 7.0%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며,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이 20.3만명으로 예상(18.5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용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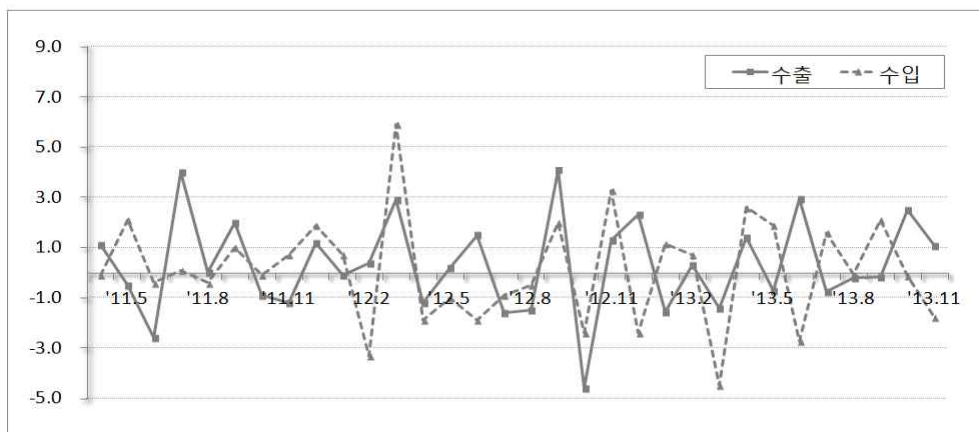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3.6	-0.2	0.5	0.5	0.1	1.1
소매판매		5.3	0.4	0.2	0.1	0.6	0.7
물가	생산자 ¹⁾	1.9	0.2	0.4	-0.1	-0.2	-0.1
	소비자	2.1	0.2	0.1	0.2	-0.1	0.0
무역 ²⁾	수출	4.4	-0.8	-0.2	-0.2	2.5	1.1
	수입	2.8	1.6	-0.1	2.1	-0.1	-1.8
실업률 ³⁾		8.1	7.3	7.2	7.2	7.2	7.0
주가지수 ⁴⁾		13,104.1	15,499.5	14,810.3	15,129.7	15,545.8	16,086.4

주 : 1) 최종재 기준 2) 국제수지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후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4.1)/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4-3호)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 7.8%(전년동기대비)로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됨
 - 中 정부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4년도 주요 경제정책방향* 제시함
 - *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지방정부 채무관리, 지역발전, 취업문제 등 민생개선, 식량안보, 대외개방 등
- 11월 산업생산은 10.0%, 소매판매는 13.7%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50을 상회하였으나 소폭 하락함
-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7%, 수입은 5.3% 각각 증가
 - 수출이 10% 이상 크게 성장하였고,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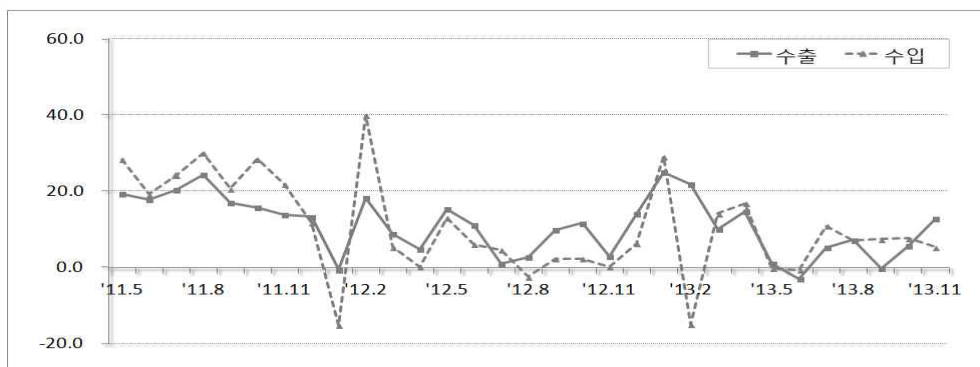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0.0	9.7	10.4	10.2	10.3	10.0
소매판매		14.3	13.2	13.4	13.3	13.3	13.7
물가 ¹⁾	생산자	-1.7	-0.3	0.1	0.2	0.0	0.0
	소비자	2.6	0.1	0.5	0.8	0.1	-0.1
무역 ²⁾	수출	7.9	5.1	7.2	-0.3	5.6	12.7
	수입	4.3	10.9	7.1	7.4	7.6	5.3
주가지수 ³⁾		2,265.90	1,993.80	2,098.38	2,174.67	2,141.61	2,220.50

주 : 1) 전월대비, 2) 수출 FOB, 수입 CIF 기준, 3)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4.1)/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4-3호)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 본

- 일본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은 0.3%(전기비) 성장하여, 2/4분기(0.9%)에 비해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
-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소비 등 민간부문 회복세를 이어나감
 -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소매판매는 1.9% 각각 증가
 -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생산자물가도 0.1% 증가
- 수출은 2월 증가세 반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4%, 수입은 21.1% 각각 증가
-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0% 수준을 유지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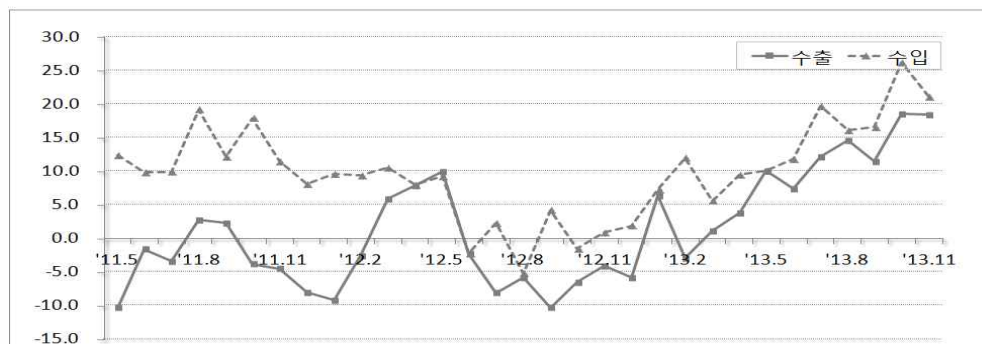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¹⁾		-0.3	3.4	-0.9	1.3	1.0	0.1
소매판매 ¹⁾		1.8	-1.7	0.9	1.7	-0.9	1.9
물가	생산자 ²⁾	-0.8	0.6	0.2	0.2	-0.1	0.1
	소비자 ³⁾	0.0	0.2	0.3	0.3	0.1	0.0
무역 ⁴⁾	수출	-2.7	12.2	14.6	11.5	18.6	18.4
	수입	3.8	19.7	16.1	16.6	26.2	21.1
실업률 ⁵⁾		4.2	3.8	4.1	4.0	4.0	4.0
주가지수 ⁶⁾		10,395	13,668	14,455	14,456	14,328	15,662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전기대비, 2010=100 3) 전기대비, 2005=100 4) 수출 FOB, 수입 CIF, 5) 계절변동조정 후 6)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4.1)/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4-3호)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3년 3/4분기 GDP성장률 0.1%(전기대비)로 전분기보다 성장세가 위축됨
 -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선진으로 그간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나, 확고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함
-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1% 감소,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4% 증가
 - 산업생산지수는 9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
 -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가 7월에 이어 5달간 기준치 50을 상회하는 52.7을 기록
- 10월 전월대비 수출은 0.2% 증가, 수입은 1.2% 감소
- 11월 실업률은 12.1%로 높은 수치를 5달 연속 유지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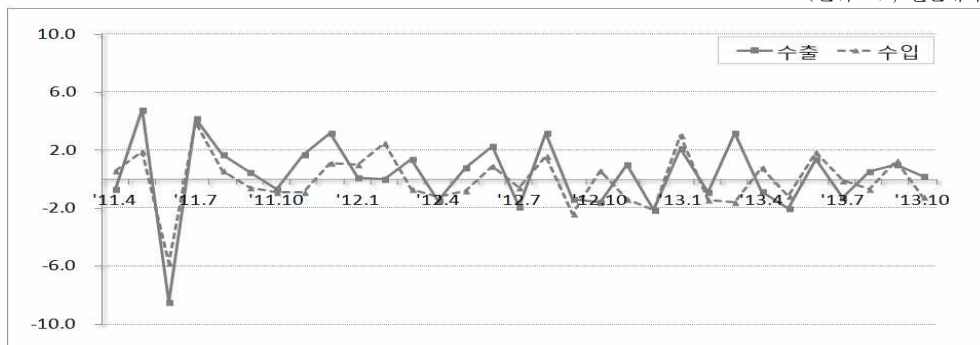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P				
		연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¹⁾		-2.4	-1.0	0.9	-0.2	-1.1	-
소매판매		-1.8	0.5	0.5	-0.6	-0.4	1.4
물가 ²⁾	생산자	2.8	0.2	0.0	0.2	-0.5	-0.1
	소비자	2.5	-0.5	0.1	0.5	-0.1	-0.1
무역 ³⁾	수출	7.4	-1.5	1.0	1.0	0.2	-
	수입	1.7	-0.1	-0.7	1.3	-1.2	-
실업률 ⁴⁾		11.4	12.1	12.1	12.1	12.1	12.1
주가지수 ⁵⁾		2,635.9	2,768.2	2,721.4	2,893.2	3,068.0	3,086.6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전기대비,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수출 FOB, 수입 CIF, 4) ILO 기준, 계절변동 조정 후 5)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4.1)/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해외경제(제2014-3호)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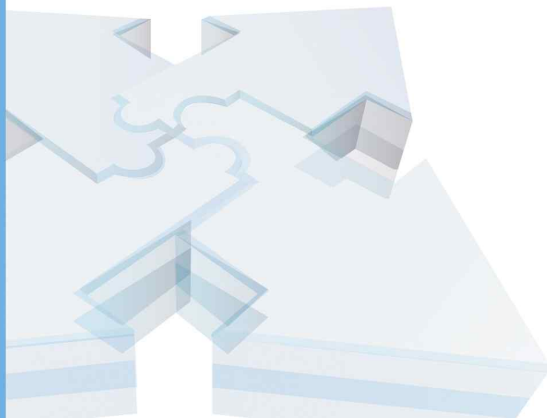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ISSUE

경제 동향

경제 일지

경제 지표

기획

['13.12.18] 난개발 방지정책 3년째 '개별공장' 감소

-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영향 ... 3년간 3.5%p 줄어 -
- 충남도는 개별공장 증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운영한 결과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3.8%(2006~2010)에서 최근 3년간 -1.1%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힘
- 도에 따르면, 지침 제정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 도내 개별입지 비율이 2010년 66.7%에서 2011년 65.5%, 2012년 64.7%, 2013년 현재 63.2%로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내에서 도의 정책에 부응해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별입지 비율이 5.2% 감소(68.9%→63.7%)한 반면,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0.9% 감소(63.4%→62.5%)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됨
- 도는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통한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공장 입지 관련 난개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도 관계자는 "성과분석 결과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는 물론 친환경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는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8월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토록 통보한 바 있음

['13.12.18] 18일 道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올해 추진실적 · 내년도 계획 보고... 분과별 분임토의 진행 -
- 충남도는 18일 공무원교육원에서 2013년 하반기 동반성장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
- 지난 7월 출범한 제2기 동반성장협의회 6개 분과 5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올해 동반성장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분과별 분임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

- 분과별 분임토의에서는 분과위원장이 1~2개의 주제를 정해 실시하되, 도의 동반성장 발전 및 활성화 방안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에 관한 해당 분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주제로 한정해 실시
- 도 경제통상실장은 인사말에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균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거래를 하고 기술과 성과를 공유해 상생의 기업문화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성장의 정신”이라고 말함
- 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력자로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반성장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한편, 제2기 충남도 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 7월 위촉돼 활동 중으로, 전자분과, 자동차분과 등 총 6개 분과에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유관 기관·단체장 등 57명으로 구성 되어 있음

['13.12.19] 도 역제안 '보전산지 공장입지' 규제 풀려

-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 충남도가 최근 정부에 건의한 보전산지 규제개선 과제가 받아들여져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이 한결 쉬워지게 되었음
- 도는 17일자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산림훼손 방지시설을 갖추면 배출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힘
- 그동안은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에 장애로 작용해 였음
- 이번 개정은 도가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현장 설명, 이해 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데 대해 중앙정부가 화답한 사례로, 앞으로 민간투자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혜를 받게된 기업으로는 공주시 검상농공단지에서 반도체 및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솔브레인(주)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LG화학으로, 이들 업체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신규투자 4조원, 고용창출 5000명, 연간 세수 650억원, 외자유치 1억불 유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도는 이들 두 기업이 공장증설을 통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원해 나갈 방침
- 도 투자입지과장은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발전적 정책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는 중앙정부의 정

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제안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13.12.19] 道, 2013 고용창출 우수기업 5곳 선정

- 19일 (주)유티아이 등에 인증패...총 379명 일자리 창출 효과 -
- 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올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주)유티아이(대표이사 박덕영)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함
 - 도에 따르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은 (주)유티아이, (주)현일코프레이션, 와이엠씨(주), 세정산업(주), 에프엔에스테크(주) 등으로, 이들 기업들은 올 한 해 동안 총 379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둠
 - 우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5개 기업이 지난 1년간 정규직 채용 317명, 정규직 전환 55명, 청년인턴 7명 등이며, 향후 6개월 이내 7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
 - 이 가운데 (주)유티아이는 최근 1년간 근로자 160명을 채용해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 가장 많은 직원을 증원했으며, (주)현일코프레이션은 90명, 와이엠씨(주)는 35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
 -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보다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10%이상인 기업에 대해 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임
 -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되고, 근로환경개선 비용 1500만원 지원,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총 47개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방침

['13.12.19] 수출 · 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 ‘성과’

- 18개 업체 669만불 수출상담·15개 업체 425만불 수출계약 -
- 충남도가 올해 추진한 ‘수출·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이 사업시작 8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두며 참가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19일 도에 따르면 충남 수출 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30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669만불의 수출상담을 통해 15개 업체가 425만불(한화 46억7500만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둠
 - 실제로 이번 사업에 수출준비단계로 참가한 금산군 소재 H사는 뿌리삼 제품을 홍콩에 A사로부터 150만불을 수출을 했으며, 수출성장 단계에 있는 공주시 소재 B사는 올해

에만 19만불을 수출하고 내년도에는 연간 20만불 계약을 체결

- 또 수출확대 단계의 천안시 소재 H사는 이 사업을 통해 에코도르에 4명의 진성 바이어를 발굴을 해 접촉한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전망
-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수출 유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준비(22개 업체), 수출성장(3개 업체), 수출확대(5개 업체) 등 수출의지가 높은 30업체가 참여해 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세부적으로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무역실무교육, 제품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정보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각종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해 참가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도는 앞으로도 업체가 희망하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본격적인 수출을 위한 모든 사전 마케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도 경제통상실장은 “수출·내수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만을 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첫 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13.12.24] 해외전시·박람회 충남관 수출성과 '톡톡'

- 올 한해 도내 96개 업체 참가...총 440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 -
- 충남도는 올해 개최된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서 도내 96개 수출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해 총 1억3900만불 수출 상담과 4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힘
- 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독일 국제 소비재 박람회 등 17개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 도내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해 충남관을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둠
-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터키 국제건축산업전에 면상발열체 생산업체 O사(홍성군) 등 5개사가 참가해 약 3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킴
- 또 지난 11월에 개최된 홍콩 화장품 미용전(Cosmoprof Asia)에 스킨케어 업체 D사(금산군) 등 5개사가 참가해 총 2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이뤄졌으며, 사후 계약 및 추가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터키 국제건축산업전에 참가한 (주)온돌리아 김효정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터키의 N사와 81개 도시에 426개 지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FTA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해외전시·박

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겠다”고 말함

- 도는 내년 1~2월에 개최되는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에도 ‘충남관’을 구성해 참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연속적으로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FTA 체결로 늘어가는 경제영토를 선점해 나갈 계획
- 도 국제통상과장은 “앞으로 FTA 체결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도내 기업이 무한경쟁 체제의 수출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13.12.26] 충남 수출 역대 최고...650억불 돌파 ‘눈앞’

- 11월까지 수출누계 596억불·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기록 -
 - 충남지역의 수출실적이 올해 11월까지 596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올 연말까지 충남지역의 한 해 수출실적이 집계사상 역대 최고치인 650억 달러를 크게 웃돌 전망
 - 도는 올해 11월까지 도내 총 수출액이 지난달 말 기준 596억3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7억4400만 달러에 비해 5.1%(28억89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6일 밝힘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5116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29억9400만 달러)에 비해 1.7%(86억7500만 달러) 증가한데 그쳐 충남지역 수출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임
 - 충남지역 수입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500만 달러) 대비 1.2%가 증가한 310억 4100만 달러로, 전국 수입액(4711억5200만 달러)의 6.6%를 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남의 올해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기록에 힘입어 28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9.7%가 늘어나 집계사상 최대치를 달성
 -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72.1%), 컴퓨터(10.8%), 반도체(5.4%) 등 IT제품과 석유화학중간원료(69.8%) 품목이 도의 수출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
 -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중국(134.7%), 홍콩(97.6%)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석유화학중간원료는 중국(72.6%), 대만(58.7%)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보임
 - 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반도체 159억3600만 달러(5.4% 증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9억3100만 달러(6.4% 감소) ▲전자응용기기 50억4400만 달러(21.7% 증가) ▲석유제품 48억1900만 달러(11.4% 감소) ▲석유화학중간원료 31억7500만 달러(69.8% 증가) ▲컴퓨터 24억1300만 달러(10.8% 증가) ▲자동차부품 23억9800만 달러(15.6% 증가)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280억6900만 달러로 12.2%의 증가율을

보였고 ▲홍콩 74억6900만 달러(6.8% 감소) ▲미국 46억1200만 달러(19.4% 증가) ▲대만 29억7800만 달러(29.0% 증가) ▲일본 27억 9000만 달러(16.7% 감소), ▲베트남 23억 1400만 달러(16.7% 증가)가 순으로 집계

- 특히 미국은 자동차부품(26.1%), 자동차(15.6%)가 미국 전체 수출액의 41.7%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지난 5월 FTA가 발효된 터키도 철강금속제품(111.8%), 전기·전자제품(81.1%)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석유제품(19.6% 감소), 반도체(40.5% 감소), 합성수지(19.5% 감소) 등 9월(3.6%)에 반짝 증가세를 기록한 후 10월과 11월 각각 23.5%, 26.8%가 각각 감소하는 등 엔화약세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도 경제통상실장은 “충남의 최근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지역으로의 안정적 수출경기 및 도 주력품목의 IT제품의 수출 증가, 신항시장으로의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당초 수출목표인 63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아 650억 달러를 돌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13.12.26] 상생산업단 신규 사업 발굴 · 지원 확대

-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진행 -
- 충남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와 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 사업 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보고회는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도와 15개 시·군은 그동안 산단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 뒤, 올 1월 충남 상생산업단 정주계획 수립·심의 규정을 제정하며 추진 기반을 구축
 - 또 2월에는 추진(분과)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3~4월엔 권역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 수렴을 가짐
 -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도는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상생산업단 조성 사업을 공모하여 3개 시 5개 사업을 확정
 -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총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
 - 또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 조성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오랜 진통 끝에 협의가 이뤄지고, 산단 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됨
 - 시범사업지구인 내포신도시와 아산 탕정지구(삼성디스플레이시티), 당진 송산지구(현대제철) 등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설립, 공동주택 건립, 공원·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

이 추진되고 있음

- 도는 이와 함께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15억7000만원(25개소)과 국비 18억4300만원(4개단지)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조성 예정인 공주 송선일반산업단지 계획에는 인근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검토해 790세대의 정주계획을 반영
- 앞으로는 상생산단 조성 공모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CEO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공모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주여건 개선 관련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내용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
-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국비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
-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최호상 상생산단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충남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상생산단은 산단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발을 일구고 정리했다면, 올해는 그 밭에 씨앗을 파종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상생산단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더 살기 좋은 충남, 경쟁력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13.12.29] 道, 올해 기업유치 성적표 'A+'

- 11월까지 614개 기업 유치...1만 1563명 고용 · 2조 253억원 투자 -
- 충남도는 올해 11월 현재 도내 유치기업 수가 614개로 올해 목표(500개사)를 일찌감치 달성했다고 29일 밝힘
- 이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대내외적 여건악화로 지방의 기업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
- 도에 따르면, 11월 현재 도내 유치기업 수는 614개로 이를 통해 2조253억원을 투자와 1만1,56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1,910억원의 투자 확대, 1,441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기업별로 평균 33억원 투자와 19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셈
- 도는 민선5기 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우량기업 선별유치 노력과 유치활동 대상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단위로 넓히는 등 기업유치 정책을 전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그간 도는 유치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박람회 개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와 충남의 핵심산업인 자동차부품, 철강 등 연관기업을 타깃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으로 벌여옴

- 올해 충남 기업유치의 주요 성과로는 내포신도시 1호 기업인 우수AMS(주)와 충남 제1호 국내복귀기업인 (주)케이에프엠 등이 꼽힘
- 도는 현재 내포신도시 입주를 목표로 2~3개사와 추가로 접촉 하는 한편, 올해 기업 유치 성과에 힘입어 제2, 제3의 기업투자자로 과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도 기업지원과장은 “충남은 편리한 교통인프라,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적자원 등 기업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 한편, 도는 내년 2월중 국내기업 3~4개사와 투자유치 협약(MOU)을 계획하고 있음

<참 고>

구 분	업체수	수도권이진	투자금액	고용인원	비 고
2013.11월말 실적	614	35	20,253억원	11,563명	
2012.11월말 실적	555	67	18,343억원	10,122명	

['13.12.30] 하나금융 충청권 지역은행 역할 강화 협약

- 30일 도 · 대전시 · 상의 등과 협약...3000억 규모 中企 자금 지원 -
- 내년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대출비율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방은행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은행이 없어 열악했던 충청권 지역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
 - 지난 30일 대전시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사옥에서 도와 대전광역시, 하나금융그룹, 대전·충남북부상공회의소간 지역은행 역할강화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짐
 - 이날 협약식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및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은행 설립시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지방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어옴
 - 이에 옛 충청은행을 인수해 지역에 많은 점포와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해온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함께 손을 잡고 지역 기업인의 자금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 나섬
 -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외환은행은 지방은행에 준하는 조직과 제

- 도를 정비하고, 지역 중소기업자금 지원 확대, 지역자금 역외유출 최소화는 물론 충청권에 소재한 은행 및 콜센터에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됨
-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별도의 독립된 심사부서 및 RM(기업여신 전담역)을 충청지역에 배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
-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저금리에 집중 공급함으로써,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
- 하나은행은 매년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대출로 지원하는 등 시중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인 45%를 훨씬 상회해 지방은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외환은행 충청영업본부도 충청권 14개 영업점을 적극 활용해 대전 및 충남지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최신정보 및 상품 제공, 해외점포망 이용,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충남도와 대전시, 대전·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정책자금 확대는 물론 금융특화상품 개발에 상호협력하기로 함
-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이미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또 이들은 지역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
-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대전광역시, 상공회의소, 하나금융그룹이 지역경제 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으게 됐으며,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신중심 중부권 시대를 맞아 충청권의 응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1998년 10월 1일 출범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는 1998년 6월 28일 이 지역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을 인수합병한 이후 15년 동안 충청권 인재 6100여 명을 채용했고, 1300억원을 지역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옴

['14.1.9]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가격 일일점검

- 15~29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 충남도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 도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한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일일 점검함

- 20개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물 4종임
- 도는 이들 제수용품과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확대하고, 할인 판매도 적극 유도할 계획
- 또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찜뽕, 칼국수, 김치찌개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민간 물가감시 기능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함
- 이와 함께 도는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현장 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살피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함
- 또 매점매석과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
- 도 관계자는 “할인행사와 직거래장터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으로 설 명절 물가안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함

['14.1.14] 도내 72개 농공단지 체질개선 나선다

- 14~24일 입주업체 애로·인프라 구축현황 진단평가 실시 -
- 충남도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도내 72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인프라 구축현황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도에 따르면 이번 진단평가는 ‘2014년도 농공단지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도내 농공단지의 오피수처리시설과 관리사무소 등 노후기반시설, 인력수급 등 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됨
- 진단평가 내용은 ▲인력수급 현황 ▲교통시설 이용체계 ▲기숙사 이용현황 ▲원자재 구입현황 ▲오피수처리시설 현황 ▲공업용수 이용현황 ▲관리사무소 이용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
- 진단평가 대상은 도내 완료농공단지 72곳으로, 이중 20년 된 노후농공단지가 42곳(58%)이며, 10년 이상 된 농공단지는 55곳(76%)을 차지하고 있음
- 도 관계자는 “이번 농공단지 진단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2014년도 농공단지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함

주요 민간 기관·단체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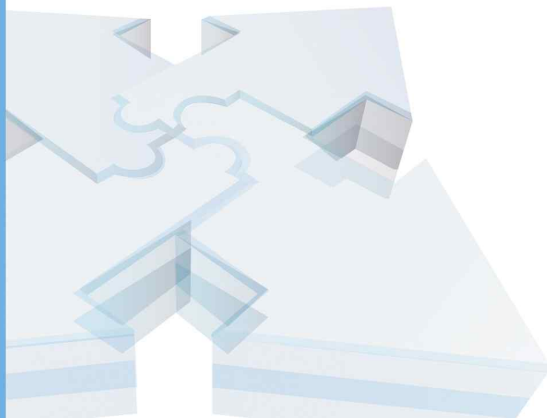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중국 내수기업의 프리미엄 전략
 - 혁신형 창업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 새로운 경쟁우위 원천, 디지털체험
 -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 저성장기의 경영전략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가계 재무상태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다보스 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 한·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비교
 - 2014년의 희망은 '일자리 증가'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소비 수요 창조의 일곱 가지 패턴
 - 더더진 원고·엔저 영향, 대비는 늦지 말아야
 - CES로 본 2014년 전자산업, 스마트폰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에 갈증크다
 - 중국시장이 가르쳐준 Post-China 시장 접근법
 - 초연결 시대의 마케팅 키워드는 '진정성'
 - 2014년 에너지 시장 전망
 - 기술융합 트렌드 활용한 이노베이터로의 도약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주요 신흥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 2013년 국제원자재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전망
 - 신용카드시장의 의무수납제도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 및 변동요인 분석
 - 국내 주택매매가격 변동의 특징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상호작용
 - 동유럽 주요 신흥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시장지표를 활용한 자산의 유동성 평가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51,605	12,724,595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384,053	12,795,464
1인당 GNI ¹⁾	만원	2,010	2,113	2,175	2,378	2,488	2,559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7	2.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2.6
광공업		27.5	28.1	28.0	30.5	31.5	31.3
전기·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1.9	2.1
건설업		7.4	7.0	6.9	6.3	5.9	5.8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0	58.2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3	80.2	78.1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6.2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16.7
건설업		7.9	7.7	7.3	7.4	7.2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69.9
실업률	%	3.2	3.2	3.6	3.7	3.4	3.2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068	43,139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1,660	38,338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5,850	2,676
본원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891	4,886
이전소득수지		△3,527	△674	△712	△3,079	△2,633	△2,761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5,479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5,196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6	30.8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3.9	23.4
정부비중		10.6	9.3	6.8	7.4	7.7	7.4
총자본형성 ³⁾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282,324	277,336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4	69.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3.1	53.5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3	15.8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7	0.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2.2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3) 자본재형태별 (원계열, 실질)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ISSUE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국
문

일일경제지표 (2013.12.2기준)

금리

(%p)

구분	'11말	'12말	'13.11말	12.30	12.31	1.2	전일비	'12말비
콜금리(1일)	3.27	2.75	2.49	2.51	2.51	2.52	0.01	△0.23
CD(91일)	3.55	2.89	2.65	2.66	2.66	2.66	0.00	△0.23
국고채(3년)	3.34	2.82	3.01	2.86	2.86	2.91	0.05	0.09
국고채(5년)	3.46	2.97	3.35	3.23	3.23	3.31	0.08	0.34
회사채(3년, AA-)	4.21	3.29	3.43	3.29	3.29	3.34	0.05	0.05
외국인채권매수(상장여원)	412,343	379,835	△10,146	479	-	△1,823	△2,302	-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11말('13.11.1~11.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분	'11말	'12말	'13.11말	12.27	12.30	1.2	전일비	'12말비(%)
KOSPI지수	1,825.74	1,997.05	2,044.87	2,002.28	2,011.34	1,967.19	△2.20%	△1.50%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36,321	32,991	34,295	29,537	32,615	42,500	9,885	-
KOSDAQ지수	500.18	496.32	517.06	496.77	499.99	496.28	△0.74%	△0.01%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95,732	176,293	△3,234	1,077	1,037	△3,512	△4,549	-

※ 기간 중 : '11말('11.1.1~12.31), '12말('12.1.1~12.31), '13.11말('13.11.1~11.30),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분	'11말	'12말	'13.11말	12.27	12.30	1.2	전일비(%)	'12말비(%)
₩/US\$	1,151.80	1,070.60	1,058.20	1,053.90	1,055.40	1,050.30	△0.48	△0.48
선물환(NDF, 1월물)	1,154.70	1,072.80	1,060.40	1,056.10	1,058.00	1,052.50	△0.52	△0.52
₩/CNY	182.29	171.80	173.65	173.73	174.11	173.56	△0.32	△0.32
₩/EUR	1,488.93	1,417.47	1,440.74	1,447.85	1,449.70	1,444.90	△0.33	△0.33
₩/¥100	1,481.22	1,238.26	1,035.02	1,005.44	1,002.28	997.44	△0.48	△0.48
¥/US\$	77.76	86.46	102.24	104.82	105.30	105.30	0.00	0.00
US\$/EUR	1.2927	1.3240	1.3615	1.3738	1.3736	1.3757	0.15	0.15
CNY/US\$	6.3248	6.2304	6.0926	6.0682	6.0628	6.0514	△0.19	△0.19

※ '14년 평균 환율('1401.1~현재): (₩/US\$) 1,050.3원 (₩/ ¥100) 997.4원

국제금리·주가·가산금리

구분	'11말	'12말	'13.11말	12.31	1.1	1.2	전일비	'12말비
LIBOR(Dollar, 3월, %)	0.58	0.31	0.24	0.25	0.25	-	0	△0.06
T/NOTE(10년, %)	1.88	1.76	2.77	2.99	3.04	-	0.05	1.28
DOW	12,218	13,104	16,086	16,577	-	-	0.44%	26.50%
NIKKEI	8,455	10,395	15,662	-	-	-	0.69%	56.72%
SANGHAI COMP	2,199	2,269	2,221	2,116	-	2,109	△0.31%	△7.04%
외평채가산금리(bp, 14년물)	165	63	28	21	-	-	0	△42
CDS(5년, bp)	161	67	56	66	66	69	3	2
CRS(1년, %)	2.05	2.22	2.07	-	-	2.01	0.02	△0.21

유가·곡물·원자재

구분	'11말	'12말	'13.11말	12.27	12.30	12.31	전일비(%)	'12말비(%)
DUBAI (\$/배럴)	104.89	107.81	108.68	108.86	108.77	107.88	△0.82	0.06
WTI 선물 (\$/배럴)	98.83	91.82	92.72	100.32	99.29	98.42	△0.88	7.19
Brent 선물 (\$/배럴)	107.38	111.11	109.69	112.18	111.21	111.80	0.53	0.62
원당 (센트/파운드)	23.3	19.51	17.15	16.43	16.38	16.41	0.18	△15.89
밀 (센트/부셸)	653	778	655	609	601	605	0.79	△22.20
콩 (센트/부셸)	1,208	1,410	1,337	1,332	1,328	1,313	△1.19	△6.88
옥수수 (센트/부셸)	647	698	415	428	426	422	△0.82	△39.56
동 (\$/톤)	7,570	7,930	7,027	7,375	7,387	7,395	0.10	△6.75
알루미늄 (\$/톤)	1,992	2,072	1,711	1,754	1,771	1,765	△0.37	△14.82

※ '12년 평균 유가: (Dubai) 105.22\$, (WTI 선물) 98.04\$, '13년 평균 유가('13.1.1~현재): (Dubai) 105.22\$ (WTI 선물) 98.04\$

※ 자료 :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8,817	- ⁴⁾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6.84	-
GRDP 성장률 ²⁾	%	7.1	6.2	5.4	12.0	5.0	-
1인당 GRDP	백만원	27.97	28.82	31.95	36.79	40.34	-
산업구조 ³⁾	-						-
농림어업	%	6.7	6.3	5.7	5.1	4.6	-
광공업		45.6	46.6	50.7	54.5	57.4	-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3.7	-
건설업		8.7	9.3	8.1	7.5	7.0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5.3	32.0	29.2	27.3	-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1,717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1,080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1,056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15.1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20.2
건설업		6.6	5.7	5.8	5.6	6.4	6.6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58.1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25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637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62.9
실업률	%	2.2	2.4	3.0	2.9	2.3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61.5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28,523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62,031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33,509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2.4

주 :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2005=100)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4) -는 통계수치발표 이전임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195,920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28,768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25,242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62	213,087	231,636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101,429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27,545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8	4,058	4,482	4,748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5	60,282	72,559	94,821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17,283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30,477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16,007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16,164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7,431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17,875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6	16,081	17,517	18,15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15,311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8,817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10=100.0, %, p)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10=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10. 11	101.7	0.1	5.0	6.4	99.7	-0.4
12	102.5	0.8	5.7	6.4	100.1	0.4
2011. 01	104.2	1.6	7.9	7.3	101.2	1.2
02	104.9	0.6	8.0	7.1	101.4	0.2
03	105.1	0.2	7.3	6.7	101.2	-0.2
04	104.9	-0.2	5.9	5.9	100.5	-0.6
05	105.4	0.5	5.8	6.0	100.6	0.0
06	106.2	0.8	6.3	6.2	100.9	0.3
07	106.6	0.3	5.8	5.9	100.8	-0.1
08	107.0	0.4	5.7	5.8	100.8	0.0
09	107.4	0.3	5.5	5.5	100.7	-0.1
10	108.1	0.7	5.9	5.8	101.0	0.3
11	108.7	0.5	6.0	5.8	101.1	0.1
12	109.2	0.5	5.8	5.7	101.2	0.1
2012. 01	109.5	0.3	5.3	5.5	101.1	-0.1
02	110.0	0.4	5.3	5.4	101.1	0.0
03	109.9	-0.1	4.4	4.9	100.7	-0.4
04	110.1	0.2	4.1	4.6	100.5	-0.2
05	110.6	0.4	4.1	4.4	100.5	0.0
06	110.6	0.0	3.4	3.9	100.2	-0.3
07	110.8	0.2	3.2	3.7	100.0	-0.2
08	110.9	0.1	2.7	3.3	99.7	-0.3
09	111.5	0.6	3.2	3.5	99.9	0.2
10	111.6	0.1	2.8	3.2	99.7	-0.3
11	112.0	0.3	2.9	3.1	99.6	-0.0
12	112.2	0.1	2.7	2.9	99.4	-0.2
2013. 01	111.7	-0.4	1.6	2.2	99.0	-0.4
02	111.0	-0.6	0.2	1.3	98.3	-0.7
03	111.0	0.0	0.0	1.0	98.0	-0.3
04	112.0	0.8	1.4	1.6	98.7	0.5
05	112.4	0.3	1.8	1.7	99.0	0.1
06	112.8	0.4	2.2	1.8	99.2	0.1
07	113.1	0.2	2.3	1.9	99.1	0.0
08	113.7	0.5	3.1	2.4	99.3	0.2
09	114.1	0.4	3.4	2.7	99.4	0.1
10	115.2	0.9	4.8	3.5	100.0	0.6
11	116.5	1.2	6.5	4.5	100.9	0.9

자료 : 2013년 11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14.1.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체감	전망	체감	전망	체감	전망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2	59.9	83.9	60.8	87.9	58.2	78.7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68.0	89.9	67.9	94.8	66.7	86.8
2013 1/4	51.3	92.6	48.4	95.2	54.6	91.2
2/4	60.7	91.6	61.8	96.5	63.4	90.2
3/4	62.3	85.5	61.7	89.5	91.1	80.2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44.5	71.0	40.6	75.1	51.9	74.4
2013. 01	41.9	72.0	38.9	66.6	49.8	76.4
02	52.9	104.1	50.9	110.4	59.9	96.4
03	59.1	101.7	55.4	108.6	54.1	100.7
04	58.8	100.8	61.2	105.3	62.4	97.6
05	69.6	96.6	66.9	102.7	68.3	92.4
06	53.6	77.5	57.2	81.4	59.6	80.7
07	49.4	78.6	49.7	72.8	58.3	75.4
08	53.9	72.5	53.2	79.4	54.2	68.7
09	84.6	105.5	82.2	116.3	74.6	96.5
10	55.4	88.7	58.3	92.5	57.6	96.2
11	79.9	105.9	87.9	111.2	76.3	97.0
12	55.5	78.6	58.5	74.3	66.1	76.3
2014. 01	—	88.9	—	85.0	—	89.3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2	1,540,187	6.2	—	—	—	—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7,720	5.8	6.5	269,446	9.1	16.7
4/4	410,503	8.4	5.9	—	—	—
2013 1/4	385,588	2.0	-6.1	—	—	—
2/4	380,702	4.6	-1.3	—	—	—
3/4	399,108	2.9	4.8	—	—	—
201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7,452	3.3	-6.2	—	—	—
11	133,475	16.2	4.7	—	—	—
12	149,576	7.1	12.1	—	—	—
2013. 01	121,870	-10.9	-18.5	—	—	—
02	128,268	10.0	5.2	—	—	—
03	135,450	8.7	5.6	—	—	—
04	120,308	0.6	-11.2	—	—	—
05	130,684	2.6	8.6	—	—	—
06	129,810	10.9	-0.7	—	—	—
07	123,643	-3.5	-4.8	—	—	—
08	122,872	-0.6	-0.6	—	—	—
09	152,593	12.3	24.2	—	—	—
10	137,074	7.5	-10.2	—	—	—
11	151,629	13.6	10.6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ISSUE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국립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0.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 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02	861,777	-15,277	2,456	620,903	46,796	191,142	2,936
03	864,711	-14,839	2,934	623,471	46,798	191,486	2,956
04	868,178	-13,738	3,467	626,387	46,884	191,914	2,993
05	870,741	-13,607	2,563	628,480	46,930	192,325	3,006
06	873,672	-13,103	2,931	630,864	46,956	192,837	3,015
07	876,401	27,192	2,729	633,075	47,103	193,183	3,040
08	877,022	28,719	621	634,179	46,986	192,807	3,050
09	880,749	30,437	3,727	637,043	47,046	193,591	3,069
10	882,694	30,066	1,945	639,168	46,904	193,541	3,081
11	885,131	29,809	2,437	641,222	46,843	193,959	3,107
12	885,737	29,986	606	642,682	46,815	194,441	3,145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

구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2	106.6	2.4	106.7	2.0	113.2	6.7	106.6	2.5	105.9	1.6	106.8	2.3
2012/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4/4	107.0	2.1	106.8	1.5	113.4	12.5	107.0	2.2	106.2	1.2	107.0	1.6
2013/4	107.5	1.5	107.2	0.8	117.7	6.3	107.5	1.5	106.7	1.0	107.7	1.3
2/4	107.2	0.6	106.3	-0.7	110.1	-3.0	107.3	0.5	106.6	0.6	107.5	0.7
3/4	107.6	0.7	106.6	-0.2	108.8	-5.6	107.6	0.7	107.0	1.0	108.0	1.0
2012.01	105.5	3.2	105.7	3.0	105.9	-3.2	105.4	3.3	105.2	2.9	105.9	3.6
02	105.9	2.6	106.1	2.1	110.1	-0.7	105.8	2.7	105.6	2.3	106.3	2.8
03	106.3	2.7	106.7	2.4	114.8	3.8	106.3	2.8	105.8	1.9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8	2.1	106.7	2.8
05	106.8	3.0	107.1	3.1	116.5	16.2	106.8	3.1	106.3	2.3	106.9	2.8
06	106.7	2.7	106.9	2.6	109.9	10.9	106.7	2.8	105.8	1.7	106.8	2.3
07	106.3	1.8	106.3	1.6	109.0	3.0	106.4	2.0	105.6	1.0	106.5	1.6
08	106.6	1.3	106.6	0.7	113.3	-2.9	106.7	1.5	105.7	0.6	106.7	1.3
09	107.4	2.3	107.8	2.0	123.7	10.1	107.5	2.5	106.6	1.5	107.5	2.1
10	107.2	2.4	107.3	2.0	119.0	15.0	107.3	2.5	106.5	1.7	107.3	1.9
11	106.8	2.0	106.6	1.5	109.9	10.0	106.8	2.1	106.1	1.2	106.9	1.6
12	107.0	1.9	106.8	1.3	112.9	14.1	107.1	2.2	106.2	1.1	107.1	1.5
2013.01	107.6	2.0	107.5	1.7	118.7	12.0	107.7	2.1	106.8	1.5	107.7	1.7
02	107.8	1.8	107.8	1.6	120.1	9.1	107.8	1.9	107.1	1.4	108.1	1.6
03	107.8	1.4	107.7	0.9	117.8	2.6	107.9	1.5	107.1	1.2	108.0	1.3
04	107.7	1.1	107.4	0.5	116.1	2.3	107.7	1.2	106.9	1.0	107.9	1.1
05	107.7	0.8	107.0	-0.1	111.3	-4.5	107.7	0.8	106.9	0.6	108.1	1.1
06	107.6	0.9	106.8	-0.1	104.7	-4.8	107.6	0.8	106.9	1.0	107.9	1.0
07	107.7	1.3	106.8	0.6	105.3	-3.4	107.7	1.2	107.1	1.5	108.0	1.5
08	108.1	1.4	107.7	1.1	112.7	-0.6	108.1	1.3	107.6	1.8	108.6	1.8
09	108.4	0.9	108.0	0.2	110.4	-10.7	108.4	0.9	107.7	1.0	108.7	1.1
10	107.9	0.7	107.2	-0.1	101.2	-14.9	107.9	0.6	107.2	0.7	108.4	1.1
11	107.9	1.0	107.0	0.4	96.1	-12.5	107.9	1.0	107.2	1.0	108.3	1.3
12	107.9	0.9	107.1	0.2	97.4	-13.8	107.9	0.8	107.3	1.0	108.3	1.2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2	62,031	3.5	—	33,509	-0.4	—	28,522
2012. 1/4	14,526	5.1	-8.3	8,686	13.9	2.2	5,840
2/4	14,811	-0.2	2.0	8,851	2.9	1.9	5,960
3/4	15,746	1.9	6.3	7,869	-11.8	-11.1	7,877
4/4	16,949	7.0	7.6	8,103	-4.6	3.0	8,846
2013. 1/4	15,904	9.5	-6.1	8,854	1.9	9.4	7,050
2/4	15,324	3.5	-3.6	8,244	-6.9	-6.9	7,080
3/4	16,622	5.6	8.5	8,214	4.4	-0.3	8,408
2012. 02	4,828	14.4	5.8	3,100	38.8	11.4	1,728
03	5,135	5.4	6.4	2,804	-1.1	-9.5	2,331
0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05	5,061	0.8	6.7	3,116	12.1	4.8	1,945
0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2	-13.2	2,736
08	5,048	2.5	-1.7	2,477	-13.6	3.3	2,571
09	5,564	2.4	10.2	2,994	-7.2	20.9	2,570
10	5,918	7.4	6.4	2,395	-15.5	-20.0	3,523
11	5,743	15.0	-3.0	2,874	4.9	20.0	2,869
12	5,287	-0.8	-7.9	2,833	-3.0	-1.4	2,454
2013. 01	5,317	16.5	0.6	2,874	3.3	1.4	2,443
02	5,101	5.7	-4.1	2,845	-8.2	-1.0	2,256
03	5,487	6.8	7.6	3,140	12.0	10.4	2,347
04	4,960	4.6	-9.6	2,861	-3.7	-8.9	2,099
05	5,297	4.7	6.8	2,452	-21.3	-14.3	2,845
06	5,067	1.2	-4.3	2,929	6.0	19.5	2,138
07	5,318	3.6	5.0	2,819	17.6	-3.8	2,499
08	5,589	10.7	5.1	2,646	6.8	-6.1	2,943
09	5,714	2.7	2.2	2,746	-8.3	3.8	2,968
10	6,218	5.1	8.8	2,896	20.9	5.5	3,322
11	5,576	-2.9	-10.3	2,829	-1.6	-2.3	2,747
12	5,550	5.0	-0.5	2,953	4.2	4.4	2,597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 차	남자	여자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2	1,080	5.4	641	439	62.9	0.5	75.0	50.9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4/4	1,100	6.7	652	448	62.8	0.6	74.6	51.0
2013. 1/4	1,070	8.0	648	422	60.2	1.2	72.9	47.5
2/4	1,208	8.9	719	489	66.9	1.9	79.4	54.4
3/4	1,218	8.8	726	493	66.7	2.0	79.1	54.2
2012.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 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02	1,047	7.4	630	417	58.9	0.9	70.9	46.9
03	1,135	9.1	690	446	63.5	1.8	77.1	49.9
04	1,186	8.2	706	480	66.1	1.5	78.5	53.6
05	1,215	9.2	726	490	67.3	2.0	80.2	54.4
06	1,223	9.2	725	498	67.4	2.1	79.6	55.1
07	1,228	8.7	735	493	67.4	1.9	80.3	54.4
08	1,210	8.9	722	489	66.3	2.1	78.7	53.7
09	1,216	8.7	722	489	66.5	2.1	78.4	54.4
10	1,208	7.1	720	496	65.9	1.2	78.6	53.1
11	1,204	7.8	726	478	65.6	1.8	78.8	52.3
12	1,137	7.8	697	440	61.8	1.9	75.4	48.1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잔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2	1,056	5.5	11	151	219	264	125	96	61	128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4/4	1,079	7.0	10	160	221	268	129	99	61	132
2013. 1/4	1,035	7.7	10	158	223	264	129	96	56	100
2/4	1,174	8.3	12	174	236	277	137	106	70	163
3/4	1,186	8.1	13	168	240	281	136	112	73	163
2012.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 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02	1,003	6.9	9	150	222	262	127	94	53	87
03	1,101	8.5	11	165	230	268	136	101	60	130
04	1,157	8.2	11	172	234	276	137	104	69	154
05	1,180	7.9	13	175	235	276	137	107	70	167
06	1,186	8.8	12	175	239	279	135	107	71	168
07	1,194	8.1	16	175	242	280	134	109	73	165
08	1,180	8.4	14	165	239	281	135	113	72	162
09	1,184	7.7	10	163	240	282	139	114	73	164
10	1,177	6.0	9	161	237	284	137	111	72	166
11	1,176	7.1	10	170	238	281	138	109	71	158
12	1,106	7.3	12	171	238	279	130	108	61	108

자료 : 행정구역(시도)/연령별 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 비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안·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2010	974	1.3	164	185	55	177	296	99
2011	1,001	2.8	163	204	64	177	297	97
2012	1,056	5.5	159	213	69	199	322	93
2012. 1/4	961	2.8	99	208	65	191	300	98
2/4	1,084	4.3	183	206	70	197	330	98
3/4	1,097	7.5	190	214	69	205	327	91
4/4	1,079	7.0	163	223	73	203	329	88
2013. 1/4	1,035	7.7	113	238	71	197	328	89
2/4	1,174	8.3	193	252	83	199	354	94
3/4	1,86	8.1	198	248	78	202	362	98
2012. 02	938	1.5	82	208	63	191	296	98
03	1,015	3.4	136	205	67	191	319	98
04	1,069	5.2	176	203	70	192	332	96
05	1,094	4.6	188	209	70	199	330	99
06	1,090	3.1	186	205	71	202	329	98
07	1,104	7.5	188	212	67	213	331	94
08	1,088	6.6	188	212	70	209	319	91
09	1,099	8.2	194	219	72	195	332	88
10	1,110	6.9	189	217	75	207	331	90
11	1,097	7.3	185	225	70	204	327	87
12	1,031	6.9	116	228	73	199	330	86
2013. 01	1,001	7.6	94	230	68	205	317	87
02	1,003	6.9	95	233	67	195	324	89
03	1,101	8.5	151	250	77	191	342	90
04	1,157	8.2	182	256	83	191	350	96
05	1,180	7.9	197	253	82	200	354	94
06	1,186	8.8	200	247	83	205	359	93
07	1,194	8.1	198	247	81	210	360	99
08	1,180	8.4	196	250	75	197	365	96
09	1,184	7.7	199	246	77	201	362	100
10	1,177	6.0	195	247	74	197	364	100
11	1,176	7.1	179	252	74	203	366	101
12	1,106	7.3	108	253	74	199	371	101

자료 :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차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2	2.3	0.0	2.2	2.4	25	4.2	14	10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4/4	1.9	-0.2	1.8	2.0	20	-6.8	12	9
2013. 1/4	3.3	0.3	3.2	3.4	35	17.6	21	14
2/4	2.8	0.5	3.1	2.4	34	33.6	22	12
3/4	2.6	0.6	3.0	2.2	32	41.6	21	11
2012.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 01	2.8	-0.1	2.6	3.2	29	1.8	16	13
02	4.2	0.4	3.8	4.8	44	19.6	24	20
03	3.0	0.5	3.4	2.3	34	31.8	23	10
04	2.5	0.0	2.5	2.4	29	7.7	18	12
05	2.9	1.1	3.2	2.5	36	79.3	24	12
06	3.0	0.4	3.5	2.2	37	26.3	25	11
07	2.8	0.6	3.3	2.0	34	36.1	24	10
08	2.5	0.4	2.7	2.3	31	30.5	20	11
09	2.6	0.9	2.8	2.2	31	63.0	21	11
10	2.6	1.0	2.8	2.3	31	71.6	20	11
11	2.4	0.6	2.3	2.4	29	43.2	17	12
12	2.7	0.5	2.8	2.5	30	31.7	19	11

자료 :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률, 행정구역(시도)/성별 실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0.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7,16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2013. 01	182,827	299,436	482,263	247,947	156,711	404,658
02	186,423	299,016	485,439	249,281	156,559	405,840
03	186,938	300,107	487,045	250,243	156,586	406,829
04	190,279	300,406	490,685	251,679	156,791	408,470
05	192,378	300,785	493,163	253,511	156,810	410,321
06	190,473	302,674	493,147	256,242	157,639	413,881
07	192,959	302,487	495,446	256,198	158,514	414,712
08	196,348	302,543	498,891	257,433	159,174	416,607
09	195,204	304,735	499,939	257,916	159,768	417,684
10	196,636	308,929	505,565	261,607	159,850	421,457
11	196,964	309,754	506,718	263,302	160,698	424,000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2	0.38	0.45	0.08	0.05	0.44	0.01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4/4	0.73	0.18	0.10	0.01	0.46	0.00
2013. 1/4	0.57	1.26	0.36	0.00	0.35	0.01
2/4	0.09	0.08	0.04	0.00	0.48	0.00
3/4	0.38	0.29	0.05	0.00	0.02	0.01
2011.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0.10	0.01	0.31	0.00
11	0.75	1.83	0.00	0.01	0.22	0.00
12	1.18	1.39	0.19	0.00	0.86	0.00
2013. 01	0.97	2.18	1.09	0.00	1.06	0.02
02	0.11	0.20	0.00	0.00	0.00	0.00
03	0.63	1.41	0.00	0.00	0.50	0.00
04	0.11	0.07	0.11	0.00	1.12	0.00
05	0.12	0.16	0.00	0.00	0.30	0.00
06	0.04	0.01	0.00	0.00	0.02	0.00
07	0.73	0.53	0.00	0.00	0.07	0.03
08	0.23	0.16	0.08	0.01	0.00	0.00
09	0.17	0.19	0.08	0.00	0.00	0.00
10	0.07	0.06	0.00	0.00	0.00	0.00
11	0.04	0.03	0.06	0.04	0.00	0.03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9,020	-8.2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7,471	-17.2
2012	9,794,659	-1.9	7,979,081	-10.3	167,889	-13.0	5,596	-60.6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6,502	19.5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6,156	-14.8
3/4	2,127,652	-27.1	1,540,403	-5.0	31,807	-24.2	6,187	-3.0
4/4	2,634,663	-27.7	1,521,927	-60.8	43,915	-11.7	2,942	-60.6
2013. 1/4	1,838,644	-24.6	1,199,772	-49.1	41,927	-8.3	2,650	-59.2
2/4	2,434,543	-6.1	1,143,533	-55.4	41,455	-10.8	2,622	-57.4
3/4	2,416,976	13.6	2,572,423	67.0	36,140	13.6	2,411	-60.1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483	-42.7	15,102	-23.5	2,942	-60.6
2013. 01	462,034	-17.3	82,466	-83.7	14,348	14.6	2,691	-8.5
02	596,566	-16.5	516,833	-49.5	12,329	-13.2	2,563	-4.8
03	780,044	-33.1	600,473	-27.1	15,250	-19.4	2,697	-58.5
04	767,159	-6.1	106,960	-90.1	17,795	18.7	2,555	-58.7
05	874,153	5.6	565,109	-5.1	15,637	12.2	2,351	-61.2
06	793,231	-16.4	471,464	-20.8	12,554	-28.4	2,961	-51.9
07	608,787	-23.3	477,506	11.8	13,264	-9.8	2,565	-57.5
08	966,712	10.0	1,228,153	96.6	12,931	23.5	2,321	-61.1
09	841,477	16.9	866,764	97.0	9,945	7.5	2,346	-62.1
10	760,401	140.8	1,426,420	64.6	14,058	4.2	2,007	-51.6
11	485,898	-26.3	365,483	-43.6	11,699	-23.6	3,265	6.4
12	738,469	-95.1	335,976	-77.5	22,775	50.8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충남도 / 미분양주택현황, 국토교통통계누리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3.3=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0. 12	85.8	0.4	0.1	79.7	98.0	92.0	79.2	5.1	0.4	71.9	94.3	88.7
2011. 01	85.9	0.5	0.1	79.9	98.0	92.0	79.5	5.4	0.4	72.3	94.3	88.7
02	86.1	0.7	0.3	80.3	98.0	92.0	80.1	5.9	0.7	73.1	94.8	88.8
03	86.8	1.3	0.8	81.1	98.7	92.1	81.0	6.6	1.2	74.2	95.5	89.0
04	87.7	2.5	1.0	82.3	99.2	92.3	82.2	7.6	1.4	75.7	96.4	89.3
05	88.3	3.2	0.7	83.3	99.2	92.4	82.9	7.6	0.8	76.8	96.4	89.4
06	88.7	3.6	0.5	84.1	99.1	92.0	83.3	8.1	0.5	77.5	96.3	89.5
07	89.4	4.4	0.7	84.9	99.6	92.1	84.1	9.1	1.0	78.3	97.2	89.8
08	90.1	5.5	0.8	85.9	100.0	92.1	85.2	10.3	1.3	79.7	97.8	89.9
09	90.9	6.4	0.9	86.9	100.4	93.3	86.2	10.6	1.2	81.0	98.3	91.9
10	91.7	7.2	0.9	88.1	100.4	93.5	87.2	10.9	1.1	82.3	98.3	91.9
11	92.6	8.1	1.0	89.6	100.3	93.5	88.5	12.1	1.5	84.4	98.3	91.9
12	93.0	8.4	0.4	90.1	100.3	93.5	89.0	12.3	0.6	85.1	98.3	91.9
2012. 01	93.4	8.8	0.5	90.8	100.1	93.5	89.6	12.7	0.6	86.0	98.4	91.9
02	93.8	8.9	0.4	91.4	100.1	93.7	90.1	12.5	0.6	86.7	98.4	91.9
03	94.4	8.8	0.6	92.2	100.2	94.0	90.8	12.0	0.8	87.7	98.4	92.4
04	95.3	8.8	1.0	93.5	100.3	94.2	91.9	11.8	1.2	89.3	98.4	92.7
05	95.8	8.5	0.5	94.2	100.2	94.4	92.4	11.5	0.6	90.1	98.3	93.0
06	96.3	8.6	0.6	94.9	100.2	95.3	92.9	11.5	0.5	90.6	98.6	93.6
07	97.0	8.5	0.7	95.7	100.3	95.7	93.8	11.5	1.0	91.7	98.9	94.7
08	97.3	8.0	0.4	96.1	100.4	96.4	94.3	10.7	0.5	92.2	99.2	95.8
09	97.8	7.6	0.5	96.8	100.5	97.1	95.0	10.2	0.8	93.1	99.4	96.4
10	98.3	7.2	0.5	97.5	100.4	97.6	95.9	10.1	0.9	94.4	99.4	97.2
11	99.0	6.8	0.7	98.4	100.5	98.2	97.4	10.1	1.6	96.6	99.4	97.6
12	99.3	6.8	0.3	98.9	100.3	98.6	98.1	10.3	0.7	97.7	99.2	98.1
2013. 01	99.5	6.5	0.2	99.2	100.3	98.9	98.9	10.5	0.8	98.7	99.7	98.4
02	99.8	6.4	0.3	99.7	100.2	99.5	99.3	10.2	0.4	99.2	99.8	99.1
03	100.0	5.9	0.2	100.0	100.0	100.0	100.0	10.2	0.7	100.0	100.0	100.0
04	100.3	5.2	0.3	100.4	100.0	100.2	100.4	9.2	0.4	100.5	100.1	100.1
05	100.4	4.8	0.1	100.6	100.0	101.1	100.6	8.8	0.2	100.7	100.1	101.1
06	100.6	4.5	0.2	100.8	99.9	101.7	100.9	8.6	0.3	101.1	100.1	101.9
07	100.8	4.0	0.2	101.1	99.8	101.8	101.2	7.9	0.3	101.6	100.0	102.0
08	100.8	3.6	0.0	101.3	99.6	101.9	101.5	7.6	0.3	101.8	100.3	102.7
09	101.0	3.2	0.2	101.6	99.5	102.3	101.9	7.2	0.4	102.4	100.4	104.5
10	101.6	3.3	0.6	102.1	100.1	103.9	103.2	7.6	1.3	103.6	101.4	106.3
11	102.1	3.2	0.5	102.6	100.4	104.1	104.0	6.8	0.8	104.4	102.1	106.5
12	102.6	3.4	0.5	103.4	100.5	104.5	105.1	7.1	1.1	106.1	102.3	1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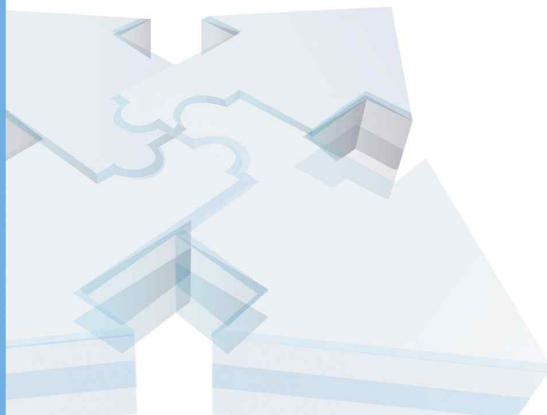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2014. 12. 12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의 용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세부내역은 아래 문의처 문의

□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21),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041-881-5455)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소상공인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본점 및 5개 지점)
-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
 -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16)
 -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 041-539-4521)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 아산 본점 : 041-530-3800 /
공주 : 041-858-4701 / 서산 : 041-668-8871 / 천안 : 041-622-9831 /
보령 : 041-933-9831, 논산 : 041-733-7161)

FTA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4. 1. 1 ~ 2014. 11. 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a. FTA 체결국에 수출입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기업
 - b. a의 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기업
 - c. FTA 계약상대국의 검증 대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
- 지원대상 업체 수 : 최소 40개 업체 대상(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지원)

□ 컨설팅 내용

- 원산지 판정 및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사후 검증대비 컨설팅
※ 기업부담금 없음(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자금지원)

□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로 메일만 접수(mail : cnfta@naver.com)
 - 담당자(조광욱, 이송희 / 041-539-4531, 4532)



알기쉬운 경제용어 해설



펀더멘털 (Fundamental)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함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임



역플라자합의

- 1995년 4월 G7경제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엔저유도를 위한 합의로서 1985년 9월 대일적자를 메우기 위해 엔고 유도를 위한 플라자합의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역플라자합의로 부름



구매력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함을 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양국의 물가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절대적 구매력평가라고도 함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구매력평가라고 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MMF (Money Market Funds)

-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지수 : Purchasing Managers' Index)

- 미국 구매관리자협회인 NAPM(National Association of Purchasing Management)이 매달 제조업 동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지표



ISM 제조업 지수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미국 20개 산업의 300개 제조업체들에게 신규수주, 생산, 고용, 물품인도, 재고 등에 관한 설문으로 산출됨
-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함



소비자기대지수 (consumer expectation index)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 현재의 경기상황,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상황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동행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빼준다는 의미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됨



셧다운 (Shutdown)

- 정부의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폐쇄되는 상태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

- 환경·복지 등 여러 사회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재무적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일종의 ‘착한 투자’임

※ 출처 : NAVER 지식백과.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제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백운성·김양중·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신동호·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중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중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곽선아

ISSUE/기업탐방

경제중앙

경제일지

경제지표

국문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효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규획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월호

내포시대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2012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3. 2월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황정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3. 3월호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김윤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충남발전연구원 정우혁

2013. 4월호

원화 강세에 따른 충남경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의미있는 변화, 'Long life design & Recycle'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박준형

2013. 5월호

문화마케팅 수단으로서 도시브랜드

충남발전연구원 이충훈

공주·부여 역사도시의 관광산업기반 조성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2013. 6월호

충남 협동조합 현황과 과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방향 및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영일

2013. 7월호

美 출구전략에 따른 세계 경제 향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수희

목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재호

2013. 8월호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준
화력발전예 의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3. 9월호

충남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 전환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충남지역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와 변화
충남발전연구원 김혜정

2013.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식서비스산업 특성 및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조중만
충남도 농어촌체험마을의 운영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1월호

뿌리산업 정책 동향과 충청권 현황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베이비붐세대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
대전발전연구원 김 필

2013. 12월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이해
와 충남지역 서비스 실태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유럽 다기능 농업(MFA) 정책 사례와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정현희

2014. 1월호

지역공동체의 삶 아미쉬(Amish)마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사회적경제로 살기 위한 교육
성공회대학교 김신양

ISSUE/기업탐방

경제동향

경제일지

경제지표

국
문